

63호

2012년 5, 6월호

독립정신 78년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1년 7월 22일(금)

제7기 독립정신 답사단, 한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에 가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백두산 천지를 향해 내딛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오르던 제 마음속 깊은 설렘도 제 두 발에
함께 담아 가립니다.



죽인단들 왜놈 옷을

작자 : 이 식

대마도는 딴 나라라 우리 서울 동떨어져
간혀 있는 아홉 사람 몸시도 슬프구료
나랏일 걱정이랴 이따금 눈물짓고
집안 생각 간절하여 언제나 애를 끓네

단 음식도 나에게는 쓰기만 하고
좋은 산이 저렇건만 한숨만 절로 나네
죽고 삶은 명이라 인력으로 못하나니
만리가 멀다 한들 일편단심 변할손가

바닷가 주먹만 한 외로운 섬에
추상같이 싸늘한 우리의 의기
죽인단들 왜놈 옷을 어찌 입으랴
맹세코 왜놈 옷을 입지 않으리

출 전 : 『마도일기(馬島日記)』

해 설 : 1905년 일제에 의한 을사늑약에 항거, 구국반일운동에 몸을 바친 '홍주 9의사'의 한 사람인 이식 선생이 1906년 유준근, 문석환, 신보균, 안항식, 신현두, 남규진, 이상두, 최상집 지사와 함께 대마도에 압송 구금되어 있을 때 읊은 옥중시로, 유배지 생활의 고절감과 나라를 향하는 충성심, 선비의 굳은 지조가 담겨 있다.

나라를 강탈당하고 주권을 빼앗긴 조선 선비의 애국충정의 추상같은 의기가 “맹세코 왜놈 옷을 입지 않으리”라는 절절한 심상으로 마지막 소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역사를 왜곡강변하는 현실속에서 '홍주 9의사'의 삶이 참으로 거룩하다.

2012 5*6

통권 63호

독립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13



- 04 권두언
역사전쟁과 19대 국회의 과제
| 조 세 열

- 07 특집
잊고 있었던 영웅
- 석정 윤세주 열사
| 유 종 현

21



- 15 우리역사 바로잡기
아버지의 노래
-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들, 사할린 한인
| 이 은 영

- 22 역사 돋보기
식민지근대화론의 허구성
| 허 수 열

33



- 29 우리고장의 독립운동
김제지역의 항일 독립운동
| 나 종 우

- 38 청년학생이 간다-1
서울역 광장에서
- 불의에 항거했던 강우규 의사의 뜻을 기억하다
| 박가현 · 조성현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이두엽, 신명식, 신준수, 김지용, 이학노, 이일선, 김현모, 안효진

편집 · 디자인 | 대관인쇄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 43** 청년학생이 간다-2_
캐나다, 그리고
그 속의 한국인과 우리의 문화
| 황 영 규
- 48** 영화읽기_
영화 <팅거 테일러 솔저 스파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스파이 영화
| 이 두 희
- 52** 100년 편지_
74주기를 맞아
도산 안창호 선생님 영전에 아뢰나이다
| 이 만 열
- 57** 임정서가_
서간도에 들꽃피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바이메탈의 꿈
| 편집부
- 67** 독립정신 이모저모



역사전쟁과 19대 국회의 과제



조 세 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간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다 일일이 거론할 수 있겠는가. 남북관계, 환경, 인권 심지어 내세우던 경제까지 엉망이 아닌 분야를 찾기 힘들지만, 세월이 흘러가도 용서받지 못할 대죄 중의 하나가 역사훼손이 아닐까한다.

역대 독재정권하에서도 정치권력의 역사변조가 지금과 같이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그들은 정통성이 없었던 만큼 속내야 어떻든 겉으로는 독립운동과 사월혁명의 정신을 존중하는 시늉이라도 했다. 그런데 지금의 집권세력은 정권 인수 단계에서부터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면서 거리낌 없이 역사 뒤집기에 나섰다.

이 정부 들어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추진으로부터 시작된 퇴행적 역사파괴는 건국절 제정 시도, 공영방송의 친일·독재 미화 다큐멘터리 방영, 이승만·박정희·백선엽·김백일 동상 건립, 박정희기념도서관 개관, 역사교과서 개악 등 민·관을 불문하고 전방위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 총결산이라 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식민지 시기와 산업화에 대한 편향적 자학적 관점의 극복’을 목표로 연말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치밀한 역사변조는, 일본 극우세력의 한국관이라 할 수 있는 뉴라이트 세력이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조·중·동 등 수구언론과 어용관변 단체가 그 논리를 확산시키며,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들이 비상식적인 역사전쟁을 도발한 배경에는 정권재창출이라는 현실적 목적 외에 나름의 이념적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친일문제나 국가폭력 등 우리 근현대사의 숨겨진 진실이 규명되면

서 그간 한국사회의 주류로 행세해왔던 보수세력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속성이 여지없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냉전체제하에서 효험을 봤던 색깔론도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현실 속에서 수세적인 국면을 타개할 근본적인 대책이 절박했던 사정도 작용했다.

그들의 주장은 식민지근대화론, 자유국가건설론, 개발독재 경제성장기여론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일본 우익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여 한국근현대사를 자학사관에서 벗어나 긍정의 시각으로 해석하자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제강점기는 근대화의 토대가 마련된 시기로,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로, 박정희는 민족중흥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한다. 반면 대한민국 헌법에 명문화된 우리 사회의 굳건한 가치기준인 독립정신과 민주주의는 여지없이 능욕당하는 수난을 겪게 됐다. 독립운동을 과대포장된 테러리즘으로, 민중민주항쟁은 좌파의 폭동으로 비하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일은 보수세력의 여망을 안고 차기 대권 주자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박근혜 씨의 역사관은 더욱 과거회귀적이며 폐쇄적이라는 점이다. 그는 5·16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으로, 10월유신을 불가피한 결단에서 나온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박정희를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일에 대해서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표현하여, 위협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던 반면, 일본 우익의 사관을 방불케한다는 평을 받은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에 대해서는 ‘시대적 쾌거’라고 칭송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19대 총선에서 역사인식의 문제로 새누리당 이영조, 박상일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을 전격 철회한 것도 다분히 선거공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교육지책으로 해석된다.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은 공천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역사인식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씨는 선거기간 내내 이번 총선이 과거를 부정하는 세력과 미래를 지향하는 세력의 대결이라고 누누이 강변했다. 그가 추호의 의심도 없이 긍정하는 과거는 아마 박정희 시대일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와 같은 이분법은 그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친일도 헌정파괴도 사법살인도 그 어떤 잘못도 부정할 수 없는 성역에 속하고 만다. 과거에 대한 성찰을 애써 외면하는 그의 역사 시계는 10·26에서 멈춰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이러한 역사인식을 고수하는 정치지도자를 한 축으로 전개될 19대 국회에 역사복원을 주문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 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역사란 한 정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한 정치인의 입맛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곧 19대 국회의 지형이 드러나겠지만 어느 편이 다수를 차지하든 역사문제에 관한 한 당리당략을 떠나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마땅할 것이다.

역사와 관련된 19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역사문제에 권력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최근 역사교과서 개편과정에서 벌어진 학계 외부의 부당한 압력은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금언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전경련 상공회의소 국방부 경찰청 재향군인회 등 온갖 이익단체와 정부기관까지 나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들이대는 전대미문의 현상까지 일어난 것이 좋은 실례이다. 이런 사태를 방지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와 교육의 대체가 흔들리는 악순환을 면치 못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따라서 사실상의 사전검열을 방지하고 역사서술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적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부 들어 현저히 왜곡되면서 중단된 과거사청산과 관련된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과거사 관련 특별법은 대부분 해당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재단 또는 사료관을 설치하여 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 과거사청산이 미완의 상태에 있음에도 연구·조사·교육이나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등 국가 차원의 노력은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다. 국가폭력의 피해자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 다수 밝혀졌음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의 직무유기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3·1운동과 4월혁명으로 대변되는 헌법정신도 구두선에 그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독립정신과 민주적 시민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입법을 통해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근현대사 교육의 강화와 국가시험 필수과목 지정,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예우 개선과 호훈 교육의 정립, 발굴 보존의 확대를 위한 전면적인 독립운동 인물정보 구축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도 차기 국회가 주목해야 할 분야이다. 한일간에는 여전히 일본군위안부문제 독도문제 등 과거사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한·미·일동맹을 의식한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는 역사교과서 왜곡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나타나듯 일본의 도발을 점차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해 왔다. 이미 일회적인 대응이나 외교적 수사만으로는 일본을 제어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를 회피한다면 국회가 실질적인 정책수립과 대안모색에 나서야 하리라 본다.

이명박 정부 4년 만에 역사정의는 크게 후퇴하고 말았다. 복원하는 데만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다. 그러나 정신세계의 오염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중차대한 문제다. 19대 국회가 역사 바로세우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우리 역사가 이대로 굴절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미래세대의 바른 이정표가 될 것인가는 차기 국회의 선택에 달려있다. 

잊고 있었던 영웅 - 석정 윤세주 열사



유 종 현
석정윤세주열사기념사업회장

석정 윤세주열사는 1901년 밀양에서 태어났다. 1919년 서울에서 일어난 3·1만세운동을 직접 참관하고 친척 연배인 윤치형과 함께 독립선언문을 구해 급히 고향 밀양으로 달려왔다. 윤세주와 윤치형은 전홍표 선생과 황상규 선생의 지도아래 김병환, 이장수, 정동찬, 박만수 등 19명의 동지들과 규합하여, 3월 13일을 기해 밀양 장터에서 1천 명의 군중이 참여한 가운데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 경찰은 주동자를 체포하려 했으나 석정열사는 중국 길림성(만주)으로 망명하였다. 그 해 11월 길림성에서 약산 김원봉 동지와 만나 무력으로 일제에 대하여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석정열사는 다음 해인 1920년 6월 의열단 동지 15명과 함께 조선총독부 등을 폭파할 계획으로 국내로 잠입하였다가 사전에 체포되어 7년이라는 긴 세월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였다. 석정열사는 복역기간 중 독서를 통해 학문을 익혔는데 특히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의 통신강의록을 구독하여 나름대로 새로운 세계관과 민족주의 이론을 확립하였다.

석정열사는 투옥된 지 6년 7개월만인 1927년 2월, 1년 11개월간의 감형을 받아 출감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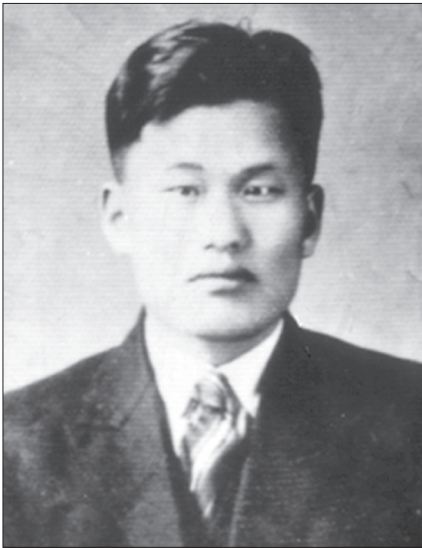
다. 그 후 고향에서 밀양신문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이 시기에 서울에서 이상재 선생과 안재홍 선생의 주도하에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 신간회(新幹會)의 밀양 지회(지회장 황상규 선생) 조직부 총무간사를 맡아 계속하여 독립운동에 열중하였다. 신간회는 당시 민족주의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으로 양분되었던 항일투쟁을 단일화 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또한 1928년에는 밀양청년회 집행위원장을 맡았으며, '독립신문 경남지국장'과 중외일보 등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언론을 통한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석정열사가 다시 중국으로 망명길에 오른 것은 1932년이였다. 일단 남경으로 가서 고향 동지 약산 김원봉이 개설한 조선혁명간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 해부터는 그 학교에서 사회학·세계경제·지리학 교관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석정열사는 1935년 남경에서 조직된 조선민족혁명당의 중앙집행위원(16명)이 되고 1938년 무한(武漢)에서 조선의용대 창설의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약산과 함께하던 의열단 시기와는 다른 독자 노선으로 나서게 되었다. 약산이 실전에 능한 장군 형이었다면, 석정열사는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지성적 항일투사였다고 할까.

일본군이 중국대륙 깊숙이 쳐들어왔을 때 중경으로 이전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에서 약산과 석정열사 역시 중경으로 이동하였고 이때부터 무한에서 창설된 조선독립의용대는 중국의 국공군과 연합전선을 펴나가기로 하였다. 1941년 중경에서 석정열사는 약산과 헤어져서 일본군과 투쟁하기 위하여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인솔, 태항산으로 북상하게 되었다. 사실 석정열사의 목표는 더 나아가 만주와 한반도까지 동진하여 일본군을 몰아내고 조국의 독립을 되찾겠다는 원대한 포부였다. 그러나 석정열사는 불행히도 태항산의 소위 〈반소탕작전〉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피해 후퇴하던 중국 팔로군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치열한 전투에서 1942년 5월 말 일본군에게 포위되어 적탄에 맞아 6월 3일 순국하였다.

중국 측의 조선의용대와 석정열사에 대한 평가

중국 측은 조선의용대(군)와 석정열사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1942년 5월 태항산 〈반 소탕 작전〉에서 팔로군 부참모장 좌권(左權) 장군과 함께 전사하였고, 조선의용대와 석정열사 등의 희생으로 팔로군 수뇌부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이 태항산 전투에서 순



▲ 태항산 전투의 영웅 - 석정 윤세주 열사(1901~1942)

국한 석정열사에 대하여 중국 측은 높이 평가 하고 있다. 석정열사에 대하여 중국 측은 <조선 민족혁명당 중앙집행위원으로서, ‘조선민족혁명당의 영혼’ 이라고 불렀다. 태항산으로 출발을 앞두고, 그는 중경에서 한국임시정부 주석, 한국독립당 영수 김구를 방문하였다. 그는 “조선의용대를 건립한 후 2년 간의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적의 배후인 그곳에서 피를 흘리면서 분전하고 있는 중국 팔로군과 함께 전투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기록이 한단시 역사 문화 홍보 책자에 실려 있다. 이들 홍보책자에는 “조선의용대와 석정열사의 희생에 대해 <중한 혈맹관계를 뜻하며 양국간의 우호협력의 가교가 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

중국 간행물에 게재된 조선의용대와 석정열사 관련 기록

하북교육출판사 발간 [한단지여(邯鄲之旅)와 지방실험교과서 <한단 역사와 문화>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한단에서 싸운 조선의용대(군)]

조선의용대(군)는 1938년 10월 10일 무한에서 설립된 한 갈래의 국제항일 무장부대이다.

1941년 태항산으로 옮겨와 섭현 중원촌, 남장촌 일대에 주둔하면서, 팔로군과 함께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1942년 5월 소탕 작전 중, 조선의용군은 팔로군 총부 경위부대와 합동으로 일본군과 혈전을 펼쳤다. 팔로군 총부 등 항일 수뇌 기관의 안전한 이동을 엄호하다가, 조선의용대(군) 지도자인 석정, 진광화 등은 섭현 장자령에서 장렬히 희생되었다.

1942년 9월, 연안에서 열린 석정, 진광화 등 조선열사를 추모하는 대회에서 팔로군 총사령관 주덕은 직접 담화를 하였으며 주은래, 동필무, 등령초 등은 만류를 바쳤다. <해방일보>에는 주덕, 엽검영 등이 조선의용대(군) 열사를 기리기 위한 추모 시문이 게재되었고, 중공중앙 북방국은 <조선의용대(군) 열사를 기리는 규정 방법>을 공포하여, 조선의용군 희생 열사의 용감한 업적과 그들의 눈부신 투쟁의 경력을 학교의 교과서와 군사 교본으로 편성하여 널리 선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조선의용군 열사를 기리는 규정 방법>에 의거 열사들의 용감한 투쟁과 그들의 영광스러운 경력을 광범위하게 선전하여 많은 군민이 조선의용대(군) 선열들의 용감한 전투 정신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화북 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대(군) 화북지대 연합은 대회를 거행하고 석정, 진광화, 호유백 등의 열사를 추모하였으며, 제18집단군, 129사 등은 대표를 파견하여 출석하고, 담화를 발표하여, “갑절의 혁명 열정으로 조선 인민이 해방을 얻고, 중한 양 민족의 단결을 촉진하도록 돕자.”고 하였다. 대회는 석정 등 열사의 가족에 대해 위문의 전보를 발신하였다.

석정, 진광화의 유해는 1942년부터 8년간 섭현 석문촌 진기로에 항일 순국열사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가, 1950년 한단시내 진기로에 열사 능원으로 이장되었다. 그러나 구 묘소는 옛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다. 2004년, 한단시는 석정 열사의 고향인 한국 밀양시와 우호 협력 관계를 맺었다.(중략)

1942년 7월 25일, 중공중앙 북방국, 제18집단군 야전 정치부에서는 조선의용대 석정, 진광화 등 7명의 열사를 기리는 것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전체 군인들이 열사들의 불요불굴의 혁명 정신을 본받도록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제 혁명 전우인 조선의용대는 중한 민족의 해방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고, 어려움에 맞서 적의 후방에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손을 잡아, 공동의 적에 대해 완강히 저항하였고, 어려운 투쟁 속에서 조선의용대의 석정, 진광화, 호유백, 손일봉, 한성도, 박철동, 왕현순(淳) 등의 지사가 잇따라 영예로운 희생

을 하였으며, 이는 중한 양 민족의 거대한 손실이다. 선열을 추모하고 이 위대하고도 고귀한 국제 혁명 우정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9월 18일에 태항 지역에서 공동 장례식을 거행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지역 당위원, 129사 정치부회 동변 구 임시참회와 변방 정부에서 준비하고 집행하기로 하였다. 기타 다른 지역에서는 918 기념회 중 모든 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3분간 묵도를 드리도록 하였다.

중공중앙 북방부, 제18집단 군총부, 129사와 진기로에 변방 정부는 진기로에 항일 순국열사 공원묘지에 대해 매우 중시하였으며, 전문가를 파견하여 책임지게 하였으며, 탐사 연구를 통해 풍경이 수려한 섭현 석문촌 북부 연화산을 부지로 선정하였다.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열악한 전쟁의 환경에서 지역 정부는 하남 임현에서 경험이 풍부한 석공 몇 명을 요청하였다. 석공들은 정교하게 조각하였으며, 근 3개월 간의 집중시공을 통해 항일 순국열사 공원묘지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섭현 석문촌 북부 연화산 언저리에 있던 묘소로부터 좌권 장군과 석정, 진광화 등 열사의 유해는 1950년 10월 10일, 한단시내에 새로운 열사능원으로 이장하였다. 이날 제18집단군 총부, 129사 사부, 진기로에 변방 정부, 진기로에 변방 임시 참의회, 태항 지역 각계 인사 및 민중 5천여 명이 새롭게 조성된 진기로에 항일 순국열사묘원 앞에서 좌권 장군 및 모든 열사를 기리는 공동 장례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129사 사장인 유백승은 담화 중 “쌍십절이 이미 31년이나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민주 공화국을 건립하는 개시이자 단지 시작일 뿐이다. 좌권 동지가 평생 동안 분투한 사업이 바로 이 혁명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었다.”라고 엄중하게 고하였다. 그는 지역의 항일 군인들에게 선열의 유지를 계승하고, 군중 유격 전쟁을 강화하며, 반격 역량을 준비하고, 열사들의 용감하고 완강한 투쟁 정신을 배우고 드높이 자고 호소하였다.

[중한 제1의 조선의용대(군)열사기념관]

조선의용대(군)가 중국 항일 전쟁 시기에 태항산 및 각 항일 전장의 국제 파시즘 부대에서 활약한 것은 중한 양 민족이 일본 침략자에 공동으로 저항하여 반격했다는 역사적 증거이다. 조선의용군열사기념관은 이 군대 역량의 영특함과 용감함을 나타내었으며, 침략자 일본을 향해 반격한 표본적인 기념지이자, 중한 태항산 연합 항일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조선의용군 열사 기념관은 석정, 진광화 열사묘 앞에 위치하고 있다. 기념관은 2004년

7월 세워졌고, 건축 면적은 110평방미터이다. 진귀한 역사 사진과 문헌 자료 백여 점 및 한국 밀양시 공식 대표단이 석정 열사의 고향에서 가져온 흙과 열사가 생전에 발표한 원고 등 혁명 문물들을 전시하였다.

[조선의용대(군)]

20세기 초, 조선이 일제에 강제 병탄된 <을사늑약> 이후, 수많은 조선 혁명 지사들이 중국으로 망명하여 반일 독립 운동을 펼쳤으며, 그 중 동북 지역, 화중 지역(상해를 중심으로)과 화남 지역(광주를 중심으로)에서 가장 많이 활약하였다. 1919년,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설립하였다.

항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 조선 항일 지사들이 항일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하였다. 1938년 10월 10일,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 정치부 부부장인 주은래의 지도와 제안하에, 국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선민족혁명당, 조선청년전위동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연맹 등의 조선당파에서 조선의용대를 공동으로 창건하였고, 중국관내에서 가장 일찍 설립된 조선항일 무장조직이었다. 조선의용대는 성립된 후, 즉시 중국 항일 전장에 투신하였고 눈부신 전적을 올렸다. 2년여 간의 시간 동안 조선의용대는 6개 전쟁 지역, 13개 성에서 일본어 교육반을 개설하였으며, 6만여 명의 대적 공작 간부를 훈련시켰다. 전선 및 적의 후방에서 한·중 소책자 5만 부 및 전단지 51만 장, 표어 40여만 장을 인쇄 배포하였다. 호북 결전, 호북 3차 결전, 곤륜관(昆仑关) 쟁탈전, 중조산(中条山) 반 ‘소탕’ 전에 참가하였고, 무주(抚州), 통성(通城), 통산(通山), 대사평(大沙坪), 숭양(崇阳), 철사강(铁丝岗), 석산(锡山), 활수당(活水塘) 등지의 전투에 참가했다.

1940년 초, 일본군은 화북 지역에서 이민 정책을 실행하여 20여만 명의 조선인을 화북 일제 점령 지역으로 강제 이주 시켰으며, ‘이한제화(以韓制华)’라는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중한 민족의 단절을 이간질시켰다. 1940년, 적의 음모를 깨뜨리기 위해 조선의용대는 중경에서 제1차 확대 간부 회의를 개최하여, 적전 개전 공작을 적후 공작 중심으로 바꾸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조선의용대는 각각 화북지대, 화중지대와 화남지대를 구성하였고, 연이어 적 배후 전선을 형성하고 후방전선으로 가서 항일 활동을 실시하였다. 1940년 가을, 조선의용대 화북 지대는 지대장 박효삼(朴孝三), 정치 지도원 석정의 인솔하에 태항산에 도착하였다.

석정은 조선민족혁명당중앙집행위원으로서, ‘조선민족 혁명당의 영혼’이라고 불려졌다.



▲ 석문촌 - 1942년 5월, 일제의 반소탕전 당시 전사한 열사(윤세주, 진광화 등)들이 처음 안치된 곳이다.

출발을 앞두고, 그는 중경에서 한국임시정부 주석, 한국독립당 영수 김구를 방문하였다. 그는 “조선의용대 건립 2년 간의 실천에 근거하여, 우리는 적의 배후인 그곳에서 피를 흘리면서 분전하고 있는 중국 팔로군과 함께 전투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1941년 1월 10일, 조선 혁명자가 조직한 첫 번째 화북 조선청년연합회가 산서성 동육진(桐峪鎮)에서 정식으로 성립되었고, 조선항일운동을 위한 화북에서의 활동은 좋은 정치 기초와 조직 기초를 마련하였다. 조선의용대가 태항 항일 근거지에 도달한 뒤, 즉시 화북 조선청년 연합회와 회동하였으며, 정치상에서 그의 지도를 받음으로 인해 점차 화북의 조선항일군대를 확대시켜 나갔다.

화북 조선청년연합회는 팔로군과 협력하여 작전하였고, 조선의용대 화북 지대가 중심이 되어 무장 선전대를 조직하였으며, 전 대원이 신식 무기를 준비하고, 전선에 뛰어 들어 적군을 와해시키고, 피점령 지역의 조선 인민을 깨우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1년 간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모두 중, 한, 일 3가지 문자의 전단지 3만여 장, 만화 4만여 장, 벽지 표어 1천 4백 53장을 배부하였다. 적의 ‘일선일치(日鮮一致)’, ‘동아시아 민족해방전쟁’이라 기만하는 음모를 폭로하였고, 일본군의 사기를 추락시켰다. 지금까지 산서성 여성현(黎城县) 운두

저촌(云头底村) 일대의 길과 건물의 벽 위에 당시 조선의용군이 쓴 표어가 남아있다. 이곳은 조선의용군이 태항산 항일전쟁에 참여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 한국 관광객들이 조선의용군 유적지 참관의 필수 코스로 되었다.

1942년 5월의 반소탕전투 중, 조선의용대와 팔로군 경호부대는 함께 명령을 받아 팔로군 총부기관을 엄호하여 목숨을 바쳐 공격하였고, 적군의 겹겹이 둘러싸인 포위망을 뚫고 안전지대로 빠져나갔다. 전투가 끝난 뒤, 그들의 용감한 정신을 표창하기 위해, 팔로군 총부는 특별히 경기관총 한 자루를 하사하여 격려하였고, 총 자루 위에 “공동 이상을 위해, 우리는 영원히 함께 서있다”라는 격려의 글을 새겼다. 이 전투 중 조선의용대 지도자 석정, 진광화와 대원 호유백 등이 용감히 전사하였다.

잔혹한 항일 투쟁 중, 조선의용군 전사의 선혈이 화북의 대지 위에 뿌려졌다. 1941년 1월~1945년 8월, 항일전쟁을 위해 화북 전장에서 희생된 조선의용대 대원으로는 손일봉, 왕현순, 한성도, 박철동, 석정, 진광화, 호유백(胡维伯), 김학무(金学武), 김파륜이(金巴伦尔), 문명철(文明哲), 한악산(韩乐山), 최철호(崔铁镐), 이용인(李镛寅), 김영신(金永信), 오균(吴均), 임평(林平), 한진(韩震), 김명화(金明华), 이성호(李成镐), 오민성(吴民声) 등 20여 명이다. 조선의용대의 엄호 하에 포위망을 뚫고 위험에서 벗어난 나서경(罗瑞卿) 정치부 주임은 매우 감격하여 “국제주의의 조선 동지, 그들의 피는 이미 우리들의 혈관에 함께 흐르고 있다.”고 의미심장하게 술회하였다. 

아버지의 노래 -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들, 사할린 한인

이 은 영 | KIN[지구촌동포연대] 활동가



아버지의 노래¹⁾

무너진 부두에서 / 배를 기다리니 / 마음만 상할 뿐 / 귀국 날은 희망속에.
월월 나는 갈매기야, / 너를 보니 부러워라 / 철 모르는 파도야, / 너를 보니 눈물 난다.
가고 싶은 곳으로 / 마음대로 날아가니 / 고향 생각 간절한 / 내 마음 전해주렴!



▲ '망향의 언덕'에서 내려본 본 코르사코프 항구

1) 사할린 한인 2세 시인인 허남영 씨(1949년생)의 <아버지의 노래>라는 작품이다.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못 돌아갈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일본놈들’이 강제로 저축해버린 돈을 아직 못 받은 것이 있어 아깝긴 하지만, 일본이 전쟁에서 졌으니 나라도 해방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 부모님과 형제들, 부인과 아이들이 있는 고향으로….

사람들은 ‘코르사코프’로 몰려들었다. 고향에 가려면 우선 배를 타야하고, 그곳(코르사코프)으로 가면 고향 갈 배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온 지역에 있던 조선인들은 코르사코프로 몰려들었다.

배가 왔다. 그런데 그 배는 일본인만 태우고 갔다. 그래도 기다렸다.

‘일본인들을 다 태워 보내고 나면 우리(조선 사람)도 태워보내주겠지….’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배는 오지 않았다. 사할린에 같이 있었던 일본인 30여만 명은 일본 패전 후 고향으로 다 돌아갔지만, 부인이 일본인이었던 이들을 제외한 조선인들은 그 배에 탈 수가 없었다.²⁾

그런데 고향에 돌아갈 시도조차 못해본 사람들도 있었다.

소련군이 사할린섬에 상륙하자 마을의 일본인들은 소개(疏開)를 서둘렀고, 그 와중에 ‘미즈호’(瑞穂, 현 포자르스스코예)³⁾라는 마을에서 ‘소련군의 스파이짓’을 했다는 이유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을의 조선사람들을 죽였다. 이웃 주민이었던 일본인에 의해 27명의 조선인들이 집단 학살당했다.

‘카미시스카’(上敷香, 현 레오니도보)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유는 같았다. ‘조선인들이 소련군의 스파이짓’을 했다는 이유로 18명이 일본 군경에 의해 총살당했다.

2) 일본은 1952년 법무성 민사국장 통달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조선호적에 입적되어 있던 자(즉, 한인)는 일본국적을 상실했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에 따라 1946년부터 시작된 일본정부의 일본인 귀환사업에 한인들은 제외되었다.

□ 일본인 귀환 과정

- 〈소련지구 송환 미-소 협정〉에 의해 292,590명 귀환 (1945.12.5~1949.7.22)

- 〈일-소 공동선언〉에 의해 일본인여자와 그 한인배우자 및 그 자녀 2,307명 귀환 (1950.9.28~1957.8.1)

* 참고자료: 강제동원 구술기록집② 『검은대륙으로 끌려간 한인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위원회, 2006.

3) 사할린주 남서쪽에 위치. 현재는 마을 근처 얇은 언덕에 ‘한국인 피살자 27인 추념비’가 세워져 있다.

4) 사할린주 북동쪽에 위치. 이 곳에도 희생자 중 한 명의 유족(딸)이 ‘통한의 비’를 세워 역사를 기록해 놓았다.

현재 진상이 밝혀진 것은 이 두 사건뿐이며, 얼마나 더 많은 학살이 자행됐을지 알 수 없다.

1905년 러일전쟁 후 일본은 남사할린(사할린 북위 50도 이남 지역)을 얻게 된다.

사할린은 홋카이도 바로 위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으로도 일본과 매우 가깝고,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석탄 자원이 양적으로도 풍부하고, 질적으로도 매우 좋은 곳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을 캐기 위해, 그 외에도 제지공장, 농작물 재배, 비행장 건설 등에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모집, 관알선 명목으로, 전쟁이 한창이었던 1938년에는 ‘국가총동원령’을 내려 수 많은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하게 된다.

또한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실어 나르는 배가 공격으로 침몰하는 등 석탄을 보내기가 어려워지자 탄광에서 일하던 조선인들을 다시 일본으로 보내게 된다. 조선에서 사할린으로,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이중징용’을 당하게 된 것이다. 하루 아침에 일본으로 다시 끌려간 이들은 가족을 사할린에 남겨둔 채 가야했으며,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영영 이별하게 된 이들의 수도 수천 명에 이른다.

1945년 8월 15일.

전쟁은 끝이 나고, 조선도 ‘해방’을 맞이했지만, 사할린의 조선인들은 버려졌다. 사할린에 끌고 올 때는 일본 ‘황국신민’으로서 왔지만, 이제는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도 의무도 없다는 논리다.

러시아 동쪽 끝 작은 섬 사할린. 4만 3천여 명의 조선인들은 그렇게 버려졌다.

이들이 바로 ‘사할린 한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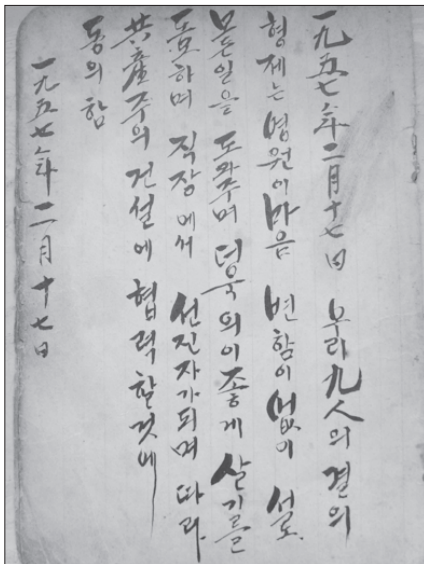
“고향 돌아간다고 배 기다리다가 미쳐 죽었잖아, 합천사람.”

하지만 고향 가는 걸 포기한 건 아니었다. ‘언젠가는’ 갈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조선학교⁵⁾도 세워 아이들이 우리말을 잊지 않도록 가르쳤다.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소련 국적도 취득하지 않은 채 무국적자로 살았다.

무국적자는 이동 제한이 있어 자식들을 큰 땅(사할린 한인들은 대륙을 큰 땅이라 부른다)의 좋은 대학에 진학시킬 수도 없었고, 취직 등에도 많은 차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국적을 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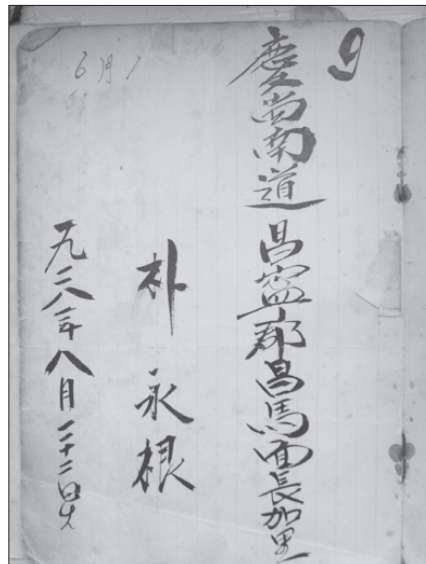
5) 1946년부터 1964년경까지 조선학교가 있었으나, 1963~64년 사이에 소련 정부의 정책으로 모두 폐쇄되었다.

득하지 않은 이유는, 언젠가 ‘문’이 열렸을 때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서 북한 국적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다. 대부분이 남한 출신(경상도 출신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이지만, 당시 북한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었고, 비록 분단돼 있지만 통일이 되면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다.



▲ [형제서약서]

1957년 2월 17일 우리 9인의 결의형제는 영원히, 마음 변함이 없이, 서로 모든 일을 도와주며 더욱 의좋게 살기를 도모하며 직장에서 선진자가 되며 따라 공산주의 건설에 협력할 것에 동의함. 1957년 2월 17일



▲ 경상남도 창녕군 창마(昌馬)면 장가(長加)리 박영근(朴永根) 1928년 8월 22일생

그리고 ‘형제서약’도 했다. 사진을 붙이고 이름과 고향 주소를 적은 명부를 만들어 외롭고 힘든 이역만리 땅에서 서로 의지하며 형제처럼 지냈다.

친구들끼리 고향 갈 때까지 소련 국적을 받지 말자는 굳은 약속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혹시 고향에서 누가 나를 찾지는 않을까...’ 밤만 되면 이불 뒤집어쓰고 한국 라디오에 매달렸고, 친구들과 만나면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을 나누었다. 사할린 한인 1세대들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고, 그 자식들인 2세대들은 매일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

이렇게 남겨진 조선 남성들 중 많은 이들은 이미 고향에 처자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라도 러시아 여성과 고향에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독신으로 고향 갈 날만 기다린 이들이 있었다. 이웃의 조선 사람들은 이 ‘홀애비’ (한인들은 이들을 ‘홀애비’라 부른다)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밥을 챙겼고, 건강을 염려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 길었고, 외로웠다. 술에 찌들어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갔다. ‘홀애비’들의 장사를 치르고, 성묘도 한 이들은 이웃에 사는 조선인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묘지를 돌봤던 한인 1세대도 대부분 세상을 떠나, 반세기 가까이 지나버린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작년(2011년) 한국 정부에서 처음으로 남사할린 지역의 한인묘를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를 통해 진행된 이 사업은 KIN(지구촌동포연대)가 위탁받아 7~8월 2개월간 진행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사할린 州都)에 있는 제1 공동묘지⁶⁾에 있는 한인묘를 조사해 이름, 생몰일, 본적, 유족 이름을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겨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약 5만여 기의 묘를 하나하나 조사해 1,593기의 한인묘를 찾아냈다. 이 중에서 봉분(러시아묘와 구분되는 특징 중 한 가지임)만 있거나 철책(러시아는 묘지를 철책으로 두르는 풍습이 있다)만 있는 경우의 묘들이 너무 많았다.

이 조사 시기에 한국 내의 사할린 유족 분들도 사할린을 찾았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생후 몇 개월 밖에 안 됐을 때 아버지를 사할린으로 보낸 분들이다. 이 분들의 손에는 수십 년 전에 받은 편지 봉투 한 장과 어렵게 구한 사망증명서 한 장씩 들려있을 뿐이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 분은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다른 한 분은 한 발짝만 더 내딛으면 만날 수 있었지만, 아버지 묘의 위치를 아시는 분은 몇 년전에 돌아가셔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영영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남사할린 전역에 이렇게 이름 모를 묘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아오신 건지 몰랐었어...”

6) 한인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동묘지만 해도 53개이며, 2011년 조사한 곳은 그 중 한 곳이었다

사할린은 강제동원의 역사적 현장이며, 그 후손들이 4세, 5세에 걸쳐 살고 있는 곳이다.

사할린 한인은 현재 사할린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여 개의 민족 중 2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할린에는 한인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 없으며, 한국 내에서는 현지 한인들을 지원할, 기념 시설물을 지을 어떠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다.⁷⁾

그 흔한 위령비조차도 없다. 그 대신 사할린에 있는 많은 묘지에서 ‘일본인 위령비’를 발견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사할린 한인에 대해 ‘인도적 지원’의 차원에서 모국방문사업과 영주귀국사업⁸⁾ 등을 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은커녕,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일본에게 무엇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

우리도 별다를 바 없지만, 사할린 한인 3세들은 이러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한다.

강제동원이 된 지 70년이 넘었다. 그 세월 동안 대부분의 한인 1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한 해가 지날수록 그 수는 적어지고 있다. 즉 이제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역사를 전해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며, 결국에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는 옛날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1세와 3세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고, 단절된 역사는 다시 복원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몇 해 전 사할린에서 모 대학의 해외 봉사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 학교에 유학 중이던 사할린한인 3세 참가자가 한인 1세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을 하고 난 후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어머니와

8) 17대 국회에서 <사할린한인지원특별법>이 발의가 됐으나 기간 만료로 폐기되었고, 18대 국회에서도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폐기될 상황이다.

한일 적십자사가 주축이 되어 사할린한인동포 영주귀국시범사업의 실시를 결정하고, 아파트 건립자금은 일본정부, 토지는 한국정부가 제공하기로 함.

1999년 경기도 안산에 사할린 한인아파트 ‘고향마을’ 완공되어 2000년 2월부터 총 489세대 917명 입주 완료. (안산시 2000-2001 시정백서 참고)

그 이전에도 개인적으로 영주귀국하거나 임대아파트를 활용한 영주귀국 시책에 따른 영주귀국(97년 강서구 등촌동 입주) 등이 이루어졌지만, 안산 고향마을과 같은 방식의 영주귀국은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는 임대아파트를 활용한 영주귀국 방식으로 전국 21개 지역에 약 3,900여 명의 사할린 동포가 영주귀국했다.

하지만 영주귀국 대상을 1945년 8월 15일 이전 태생자(1세로 규정)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식과는 같이 영주귀국을 할 수 없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 영주귀국을 포기하는 1세들도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사할린 잔류 한인1세는 약 1,5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 강제동원이 가장 극심했던 '브이코프 탄광'의 조선인들

통화하면서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오신 건지 몰랐었다'며 흘린 그 친구의 눈물이 가슴을 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제'라도 해 놓을 역사마저 없어져버릴 수 있다. 지금이라도 역사를 기록하고 보전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기념관이든 자료관이든 후세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 많은 세월을 가슴에 묻은 채 지금은 사할린땅에 묻혀 있을 저 사진 속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땅 속에 묻어둘지 밖으로 끄집어 내어 '살아 있는' 역사로 만들지는 우리가 판단해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

현재 사할린에는 3만 5천여 명의 한인이 살고 있다. 

식민지근대화론의 허구성



허 수 열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식민지근대화론”은 짧은 글로는 다 설명하기 어렵다. 마침 이번 호에 ‘전북 김제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글도 수록된다고 하니, 전북 김제지역의 벽골제를 사례로 삼아 그 허구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벽골제는 지금부터 약 1,700여 년 전인 삼국시대에 축조된 저수지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식민지 근대화론의 태두인 이영훈 교수는 뜬금없이 그것을 방조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뉴라이트의 계간지인 『시대정신』 2007년 여름호와 가을호에서 조정래 소설가를 “광기서린 증오의 역사소설가”로 규정하고, 『아리랑』이라는 소설을 역사적 사실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소설가의 허구적 구성으로 몰아붙이면서 맹렬한 비판을 가하였다. 그 비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벽골제가 방조제인데 저수지로 잘못 알아 왔다는 것이다.

왜 뜬금없이 방조제설을 들고 나왔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벽골제가 방조제라면 그 뚝 아래까지는 무시로 바닷물이 들락거린 것으로 되고, 김제 만경평야는 소금기로 풀이 죽어 있는 갯논으로 가득 차 있었던 지역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이렇듯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이 조선에 진출해 와서 개발함으로써 비로소 비옥한 농토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식민지근대화론의 역사관은 조선시대까지 이루어진 모든 발전을 최대한 과소평가하고 일제시대에 이루어진 개발을 최대한 과대평가함으로써 식민지시대에 이루어진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각을 말한다. 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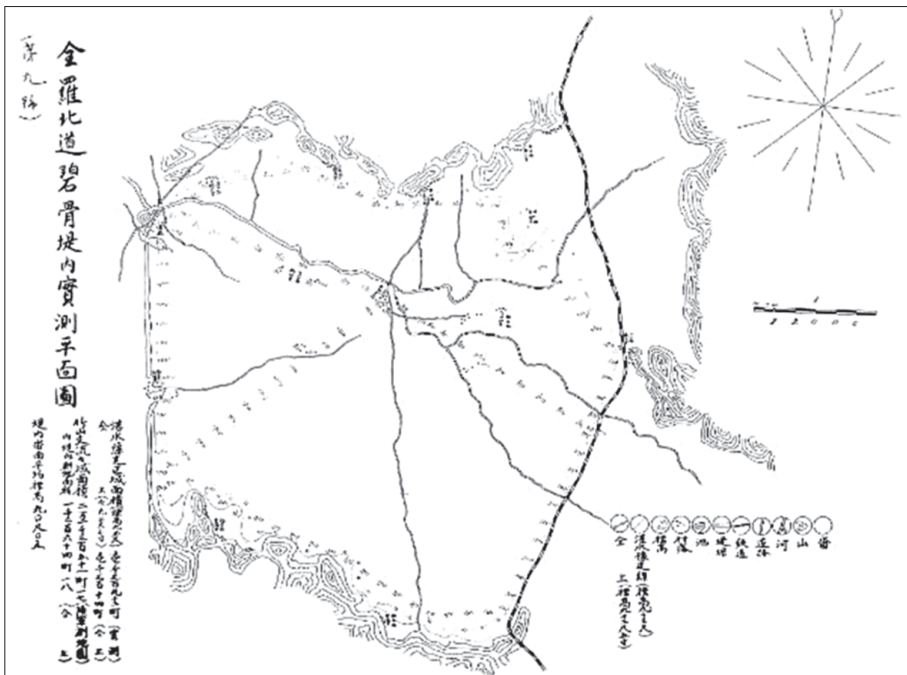
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도 이러한 역사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벽골제는 과연 방조제였을까?

우선 벽골제에 관한 무수한 옛 기록이 있지만,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방조제라고 기록한 글은 단 한 줄도 본 적이 없다. 이영훈교수가 벽골제를 방조제라고 주장하면서 언급한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의 “본조 태종 15년에 다시 쌓았으나, 이익은 적고 폐단은 많았으므로 곧 허물어뜨렸다”라는 구절이다. 이 구절에도 벽골제가 방조제라는 의미는 어디에도 없다. 그 반면 벽골제를 저수지로 묘사한 글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억지로 벽골제를 방조제로 주장하면서 매우 이상한 해석이 뒤따르게 된다. <그림1>은 동진강수리조합의 설립신청 문서 속에 들어 있는 “벽골제 내부 실측평면도”라는 지도이다. 이 수리조합의 설립신청은 1911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1910년대 초의 벽골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림1〉 벽골제 내부 실측평면도



〈자료〉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토목과 문서 (마이크로 필름 번호 90-0741), 518쪽.

지도의 가운데 조금 위쪽으로 현재의 원평천(일제시대에는 죽산지류, 조선시대에는 호천이라고 하였음)이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도의 오른쪽에는 호남선 철도 노선이 보인다. 지도 왼쪽 끝으로 남북 방향으로 겹선으로 표시된 벽골제 둑이 보인다. 그리고 그 둑 중간에 두 군데 웅덩이 같은 표시가 있어, 이 지도를 그릴 무렵에는 이미 벽골제가 일부 붕괴되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1872년의 지방지도(김제군)에서도 벽골제의 이 부분이 무너져있고 웅덩이 같이 표기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용보라고 하였다. 이영훈 교수도 이것을 용보라고 하였고, “곧 허물어뜨렸다”는 세종실록지리지의 기사를 인용하였던 바로 그곳이다.

현존하는 벽골제 둑에 대한 실측자료를 보면 둑의 표고는 8.2~8.7m이고, 바닥의 표고가 대체로 4m 내외이기 때문에, 둑의 높이는 4m 조금 넘는 것으로 된다. 이런 웅장한 규모의 둑이 남북으로 약 3km 뻗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진강 수리조합에서 제출한 실측자료들을 살펴보면, 벽골제 내부와 외부 모두 표고가 거의 차이가 없다. 이영훈 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벽골제는 “평지형 저수지”인 것이다.

벽골제가 방조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벽골제 내외부의 표고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일부가 붕괴되었다면 바닷물이 벽골제 내부 지역으로 밀려들어 올 것이다. 내부의 농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일부 붕괴된 둑을 방치했을 까닭이 없다. 붕괴된 구간이 짧기 때문에 공사비도 크게 들지 않을 것이고, 공사기간도 크게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방치했을까? 저수지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수압에 의해 둑이 붕괴될 염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둑 아래의 농경지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조에 보면 그런 염려를 하는 기사도 나온다.

이영훈교수도 이런 사태를 상정한 것 같다. 그래서 그는 벽골제 둑의 가운데 부분에서 동쪽으로 뻗어 있는 물길 주위에 방조제를 쌓았다고 주장한다. 1917년에 측도된 조선총독부의 지도에 이 하천의 주위에 제방의 표시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방조제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 제방의 길이는 약 1.5km였다.

만약 그 제방이 방조제였다면, 현존하는 벽골제의 둑 높이가 4m 정도이므로 벽골제 내부로 1.5km 뻗어 간 제방도 대체로 비슷한 높이를 가졌어야 한다. 벽골제는 평지형이기 때문이다. 높이 4m 가량의 거대한 둑이 하천 양편으로 1.5km의 길이에 걸쳐 축조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시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벽골제에 버금가는 그런 거대한 수리시설이 존재했다는 기록은 본 적이 없다. 또 그런 거대 시설이 존재했다면 그 유적이 일부라도 남아 있을 터인데, 이 역시 찾아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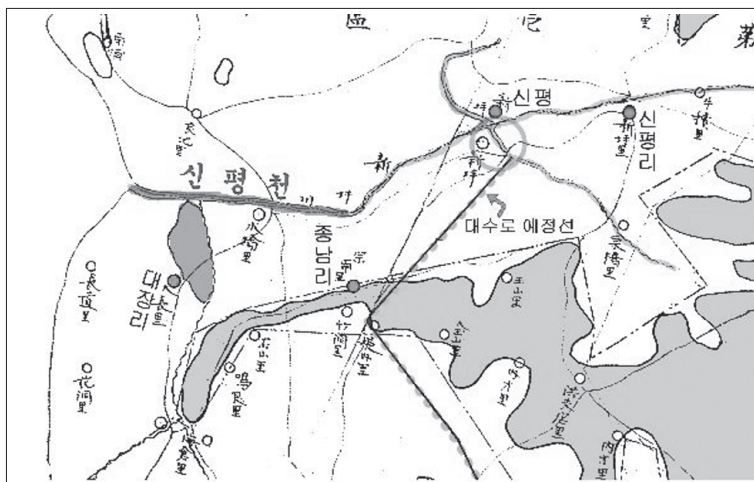


수 없었다. 현존하는 벽골제 유적에서 판단해보건대, “불과 몇 백 미터만 이어 붙이면 될 터인데, 그리고 새로 그런 거대 시설을 만들 까닭이 없지 않은가?” 그런 시설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영훈 교수는 벽골제 중간의 허물어진 곳(용보)를 통해 바닷물이 동쪽으로 1.5km 정도 진입했다고 하였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바닷물은 용보의 웅덩이와 수로를 들락거렸다는 의미가 된다. 바닷물이 출입하는 물은 염도가 높아 농업용수로 쓸 수 없고, 따라서 용보가 “보”일 수 없다. 바닷물을 끌어다 농사지를 수야 없지 않은가?

김제 만경평야지대의 수리시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벽골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벽골제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은 원평천 조금 북쪽에 있는 신평천의 신평 부근에도 방조제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림2>에서 그가 방조제라고 주장하는 독을 표시해 두었다.

〈그림2〉 신평천의 신평 부근의 독



〈자료〉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토목과 문서 (마이크로 필름 번호, 90-0741), 522쪽

이 지도에 의하면, 이영훈 교수가 방조제라고 주장하는 위치는 조그만 하천이 존재하던 곳이었다. 동진강 수리조합의 문서에 의하면, 만석보(용산보)에서 취수한 물을 대수로(大水路)를 통해 이 하천에 연결할 계획이었다. 만약 이것이 방조제였다면, 대수로 예정선은 갯벌에 그어진 것이 될 터

이고, 신평천 하구 부근의 소류지를 비롯하여 거기에 연결된 수로나 도로 및 마을도 역시 갯벌 위에 세워진 것으로 되어 버린다. 지도 바깥 조금 아래쪽에는 원기리라는 곳이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거기에 장시도 서고 있었다. 갯벌 위의 장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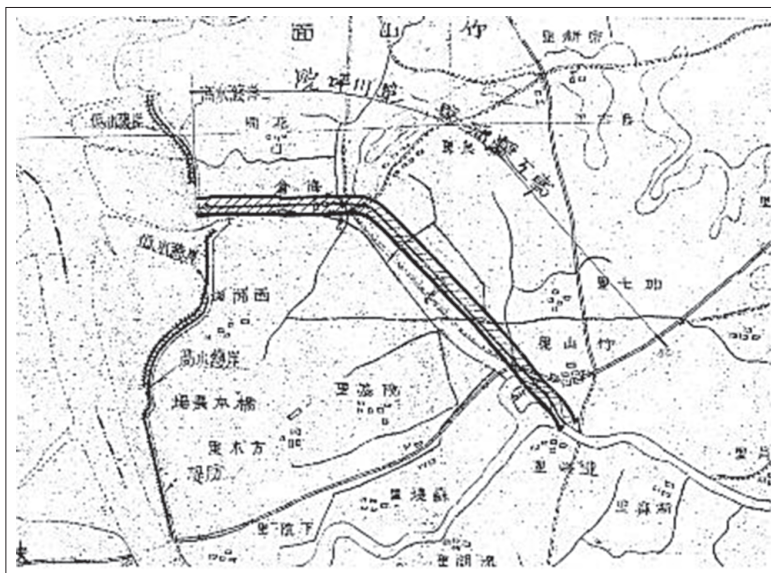
이영훈 교수는 벽골제의 둑과 신평천의 하천의 둑을 방조제로 간주함으로써, 조선시대의 해안선은 현재보다 한층 내륙쪽에 들어온 곳에 설정된다. 벽골제만 하더라도 원평천 하구에서 직선거리로 거의 6~7km에 달하는 내륙부에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현재의 해안선과 그가 상정한 방조제 사이의 지역 즉 김제만경평야의 핵심부분은 갯벌이거나 갯논이 되어 버린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방조제가 존재하지 않았는가? 러일전쟁 이후 호남평야 지대에 진출한 일본인들이 조직한 군산농사조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작성한 한 문서에 조선재래의 방조제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김제만경평야지대가 아니고 그 보다 조금 북쪽인 만경강 하구에 대한 것이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신장에서 하광리에 이르는 25.9km에 걸쳐 높이 2.0~3.4척에 달하는 방조제가 1851년에 축조되었다고 한다. 1917년의 조선총독부 지도에도 이 지역에 방조제 표시가 보인다. 이영훈 교수는 1895~1899년에 일본육군 측지부가 목측으로 제작한 지도와 1917년의 조선총독부 지도를 서로 비교하여 전자에는 없는 방조제 표시가 후자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방조제가 1899~1917년 사이에 축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군산농사조합의 자료와 다르다. 그는 이런 자료가 존재하는 것조차 알지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일본육군 측지부의 조사에는 방조제 같은 것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무시해 버림으로써 이런 잘못된 인식이 생겼던 것이다.

해창갑문(해창 방조수문이라고도 한다)에 대한 지적에서도 명백한 잘못이 보인다. <그림3>은 조선총독부 토목과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지도이다. 원평천 개수공사는 1937년부터 시작되었고, 지도는 그 중 원평천 제1호 굴착공사 부분을 따 온 것이다. 이 공사는 죽산리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흘러 하원리에서 동진강과 합류하던 원평천의 물길을 죽산리에서 북서쪽의 해창방향으로 완전히 그 물길을 바꾸어 놓는 공사였다. 그리고 새로 만든 물길을 따라 바닷물이 진입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하구 부근에 축조한 것이 해창갑문이었다(새로 만든 물길이 굽어지는 곳 부근에 해창갑문이 있다). 이 해창갑문에 대해 이영훈 교수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림3〉 원평천 개수공사 중 원평천 제1호 굴착공사 지도



〈자료〉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토목과 문서 (마이크로 필름 번호 88-0281), 156쪽.

“(해창갑문에 의해-인용자) 바닷물의 진입이 이렇게 원천적으로 차단되자 벽골제까지의 방대한 평야가 바닷물의 소금기로부터 해방된 옥답으로 변해 갔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영훈 교수는 이 해창방조제가 원평천 개수공사의 일환으로 1940년 5월 1일에 착공되어 1942년 10월 1일에 준공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것 같다. 원평천 하류의 하천의 흐름이 그렇게 달라진 것조차 전혀 알지 못했음에 틀림없다.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위의 인용문처럼 주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김제만경평야는 일제시대에 와서 비로소 소금기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선시대에 해방되어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정래 소설가에 대한 이영훈 교수의 비판은 그 밖에도 군산 원편에 있던 후지이 간타로의 간척지와 그 간척지 중간에 축조된 저수지, 이완용이 소유하던 경지면적 등등 다방면에 걸쳐 있지만, 그 어느 하나 타당한 것이 없다. 이 지역의 농업에 대한 이영훈 교수의 생각은 거의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

조정래 소설가가 쓴 『아리랑』은 소설(fiction)이다. 역사소설이기는 해도 소설이다. 따라서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부분이 덧붙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영훈 교수는 학자이다. 그러나 그가 쓴 논문은 소설보다 더 소설스럽다. 그의 주장 대부분이 허구라는 의미이다. 소설가의 소설에 나오는 허구(fiction)가 보다 사실(fact)에 가깝고,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되는 것이 오히려 허구가 되는 기묘한 현상을 보는 것이다. 이쯤되면 “광기 서린 증오의 역사소설가 조정래”라는 그의 글 제목은 바로 자신을 향한 것이 되지 않을까?

짧은 글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최근 필자가 출간한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한길사)을 참조하라. 

김제지역의 항일 독립운동



나 종 우
원광대 사학과 교수

1. 김제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의 사회경제적 배경

일제가 한국을 강제 병합한 후 헌병·경찰 등의 무력을 바탕으로 이른바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막대한 예심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하여 총독 부는 물론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일본인 지주들이 대규모로 토지를 집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 농민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회사령 등을 통하여 민족 자본을 억압하고 일본 자본의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한국 내 식민지 경제 구조를 구축하였다.

토지 조사 사업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실시되었는데 이는 반봉건적인 지주 소작 제도를 강화하여 일반 농민과 소작농의 경제적인 처지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1920년 이후로는 일본 국내의 부족한 쌀을 보충하기 위한 산미 증식 계획도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였다. 이로 인하여 식민지 조선은 항상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려야 했으며 김제 지역에서도 가장 드넓은 금만평야에서 수집되어 일본으로 유출된 쌀의 양이 전국적인 규모였다.

일제는 자국 내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풍요로운 김제 땅을 침탈하였다. 특히 쌀 생산 증대를 위해 수리 시설 확충과 수리 조합 결성,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개간·간척 등을 다각적으로 진행하였다. 1925년 일제가 결성한 동진수리조합에 의해 김제 면적의 2/3 정도가 관개(灌溉)되어 관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죽산면 하시모토농장, 김제읍 이사카와농장 등 일본인 지주가 경영하는 농장이 등장하면서 당시 소작농이었던 조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쌀 생산 증대를 꾀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강제 수탈은 금만평야를 무대로 한 조정래의 소설 『아리랑』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처럼 김제라고 하는 지역은 평야 지역으로 일제 수탈의 제1의 목표가 되었으며, 다른 지역보다 철저하고 빠르게 식민지화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1930년대 초 일본인이 김제에 대하여 쓴 다음 글을 살펴보면 확실하게 잘 알 수 있다.

“호남선 개통까지는 후미진 모퉁이의 일개 소읍에 지나지 않았지만 1910년 철도공사 개시와 더불어 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이시카와 현(石川縣) 농업주식회사는 여기를 근거지로 삼아 농업경영을 시작하였고 계속해서 일본인 이주자의 증가를 보여 최근 김제역 부근의 발전은 실로 현저할 만하다.”

“김제는 천지가 본래부터 그 크기를 자랑하는 게 부족하지 않지만 호남선 개통 이래 시민의 노력 분투에 의해 내선인(內鮮人) 2만여를 포용하는 산업중심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최근의 미국 이수출액(移輸出額)은 실로 조선 전체 제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宇津木初三郎 『朝鮮の寶庫 金堤發展史』自序, 1934)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글에 보면 김제는 호남선 개통 이래 시민의 노력분투로 산업중심도시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시민이란 바로 일본인 특히 이시카와 현 농업주식회사와 같은 일본인 지주라는 것이다. 여하튼 일본인들의 김제지역 진출은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비례하여 김제지역 농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 졌다.

다음 가사는 1927년 2월 말경 김제에 신임 군수가 부임함에 따라 군청회의실에서 읍면장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다. (1927년 2월 23일자, 동아일보)

죽산면장 : 우리면의 총 경지 면적의 80%가 일본인 소유이며, 농가호수는 1,150여 호이지만 자작농은 4가구에 불과하다. 이 외는 전부 소작농이어서 이들의 생활은 실로 비참하다.

백산면장 : 우리면의 경지면적은 임야면적보다 적은 관계로 빈곤자들은 임야에서 나오는 땀감을 팔며 근근이 생활을 꾸려나가는 상태이다.

용지면장 : 우리면의 경우 금평리는 78가구에 달하는 마을이지만 일본인 몇 명이 가옥을 거의 전부 소유하여 집세는 거의 전부 노동력으로 내고 있다.

백구면장 : 주민의 약 85%는 소작농이며 소작료는 50% 내지 6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대부분은 소작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식량이 없어지는 상태이다.

만경면장 : 하루 한끼도 먹지 못하는 궁핍한 농가가 40~50%에 달하고 있다.

부량면장 : 우리면은 동진평야에 있기 때문에 경지면적은 아주 넓다. 그러나 일본인 소유가 70% 이상이고 조선인 소유는 20%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소작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덕면장 : 우리면은 군내 17개 면 가운데서도 가장 극빈한 면일 뿐만 아니라 면내 조선인 소유지는 25%에 불과하여 하나의 소작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진봉면장 : 경지면적 2천여 정보 가운데 70% 이상이 다기(多木)농장의 소유이다. 게다가 소작료가 아주 높기 때문에 소작인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이다.

하리면장 : 농가가구의 90% 이상이 소작인이어서 그 가운데 80% 이상은 금세 식량이 떨어져 실로 면민의 생활은 비참하다.

수류면장 : 우리면은 산간마을이어서 경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 화전경작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면민생활의 궁핍함은 입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다.

김제읍장 : 겉으로 보면 아주 발전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상공업은 말할 것도 없이 외인(外人)들이 경영하는 것이 전부이다.

이상의 당시 회의상황을 살펴보면, 대개 읍면장회의는 군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거나 해당 읍면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이지만 이날 회의는 김제 주민의 참담한 생활에 대한 발언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김제지역은 군산 개항(1899년 5월 1일) 후, 일본인 토지매수가 어느 지역보다 빠르고 대규모적으로 행하여졌다. 1916년 경지면적에 대한 일본인 소유 경지비율은 무려 56.2%에 달하였다. 당시 대략 전체 조선에서 일본인 소유경지 비중이 5% 내외임을 감안한다면 김제 지역에서 일본인 토지 소유는 조선 최고 수준이었다. 그 뒤 1930년경 김제부근의 일본인 소유 경지면적은 약 1만 정보에 달했다. 이러한 여러 조건들은 김제라는 곳이 풍요와 빈곤, 개발과 수탈, 순응과 저항이라는 당시 사회경제구조의 필연적인 양상이었음을 보여준다. 상부 구조로서의 빈곤과 수탈 그리고 저항은 하부 구조적인 사회 경제구조에 반작용을 하며 여러 형태의 운동을 일으키고 당시 전국에서 제1의 소작쟁의 다발지역이 되었다. 1926~39년간의 김제 소작쟁의 건수는 총 5,998건으로 이 시기 조선전체 137,873건 가운데 4.4%를 차지하여 조선 대지주쟁의 다발군 가운데 조선 전체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II. 김제 항일 독립운동의 전개과정

1919년 2월 8일 일본 유학생들이 동경의 조선 YMCA회관에서 독립 선언서를 낭독한 후 국내에서도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계의 연합으로 준비가 진행되었다. 마침내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시내 각 학교의 학생들과 국장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온 대규모 군중들이 운집한 가운데 독립 선언서의 낭독과 함께 시가행진을 펼치는 3·1운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3·1운동은 전국 각처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전라북도 지역의 3·1운동은 독립 선언서가 천도교 조직을 통하여 익산, 김제, 옥구, 무주, 정읍, 태인, 순창, 부안, 고창 등지로 배포되면서 3월 3일부터 시작되었다.

김제지역의 항일운동

일제강점기 김제지역의 항일운동은 앞에서 언급한 소작쟁의에서 시작하여 3·1운동 당시에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가열차게 전개되었다. 1919년 3월 2일 김제읍 천도교 교구실에 독립 선언서가 도달되어 교구장 공문학을 교인들을 통해 죽산면·부량면 등 각 면에 배포했고, 인근 마을에까지 전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3월 4일에 김제역 대합실에서 독립 선언



▲ 원평장터기미독립만세운동기념비

원평리 장터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을 기념하여 당시의 거사장소에 기념비가 세워졌다.
(건립연도:1989년, 소재:전북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서 20장 한 꾸러미가 발견됐고, 3월 6일에는 김제읍에서 독립 선언서가 거리에 산포되고 운동이 진행되려고 하다가 일제 측에 의해 미연에 방지되었지만 산발적인 독립 운동 시위가 이루어졌다.

(1) 원평장터의 만세 운동

3월 20일 오후 금산면 원평리 원평장터에서 주민들과 장사꾼 수백여 명의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원평장터에서의 독립운동은 김제·만경 지역과는 다르게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수류면 구월리의 청년 배세동은 13일 전주읍 시장에서의 만세 운동에 참가하고 돌아와서 수류리에서도 만세 운동을 일으킬 것을 결심하고 3월 16일에 같은 마을 전도명, 전도량, 전부명, 이완수, 김성수 등과 함께 3월 20일 원평 장날에 맞춰서 만세운동을 결의하고 독립 선언서와 태극기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정보가 누설되어 익산 주재 헌병 1개 중대 100여 명이 투

입되어 몸수색과 도로 차단을 하는 등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같은 날 오후 6시 헌병대가 퇴각하고 경계가 느슨해지자 산에 숨어있던 농민들은 미리 준비해 온 태극기를 가지고 장터로 나와 장터의 장사꾼과 아낙네들 모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본 경찰·헌병들의 무력 제지에 의하여 군중은 해산되고 배세동 등 주동자 10여 명은 체포당하였다.

이 원평장터의 만세 운동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당시 이 운동을 주도한 9명 중 8명이 한 마을에 살았고, 이들이 보여준 행동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산면 원평리 어울마을은 당시 40여 호가 천수답에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가난한 농촌마을이었다. 하지만 마을 주민 대다수가 동학 농민군의 후손들이었고, 특히 만세 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배세동을 제외한 전도명, 전부명, 이병섭, 전천년, 이완수, 고인옥, 김성수, 이병태 등 8명이 한 마을 출신이었다. 만세 운동으로 9명이 체포된 후 조선 총독부 광주지법 전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6개월과 1년의 실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수감 생활 중 일제는 억압과 핍박을 가족에게로 돌렸고, 주민들에게는 이들 가족의 일을 돕지 못하게 했지만 어유마을 사람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가장이 부재해 있는 이들의 농사를 대신 지어주며 가족들을 돌봤다.

다른 지역에서는 일제의 핍박이 두려워 실행하지 못한 행동을 어유마을에서 실행하면서 또 다른 일제의 만행에 항거를 했다.

(2) 만경공립보통학교 만세 운동

원평장터에서의 독립 만세에 이어 4월 4일에는 만경 장날에 맞추어 만경공립보통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세 시위가 있었다. 만경공립보통학교의 훈도 임창무·오연길·장태석·이형재 등은 일찍부터 생도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하였고, 이웃에 있는 익산의 문용기 등과도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만경 장날이던 4월 4일 정오, 교사 임창무가 3·4학년 생도 전부를 교정에 모아 놓고 독립의 타당성을 생도들에게 설명한 후 생도들을 격려하고 태극기를 들고 앞장서서 독립 만세를 외치자 생도 100여 명이 대열을 지어 시장으로 나가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만세를 불러 일대 성황을 이루었다. 비록 순찰 중이던 순사와의 승강이가 있었지만 한참 동안은 시장을 돌며 시위 행위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제

경찰서의 무장대가 출동하여 폭력으로 제지하자 대열은 해산되고 임창무 등 주동 인물들은 구속당했다.

(3) 김제치문학교 학생들의 항일 운동

1943년 2월 말 민속놀이의 하나로 지난해 액운을 쫓기 위한 ‘매굿’을 치는 날 밤에 지금의 백구면 유강리에 있던 치문학교 5학년 급장 박병화가 소란한 틈을 타서 공덕면 동계리 중리뜸의 일본인 여교사 ‘마쓰오카’ 집에 몰래 들어가 일장기를 찢고 도주하면서 시작되었다.

일장기 훼손 사건은 즉시 신고가 되어 백구면 지서 소속 경찰이 출동하여 박병화를 체포한 뒤 조사하였는데, 그가 연소자인데다 본인이 폐병 환자라고 진술하는 바람에 훈방되었다. 그 무렵 치문학교 남쪽 철도변에 있던 ‘시마모토’의 집 앞길에서 학생 수 명이 밤에 일본어로 ‘장개석 만세’를 제창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 만경강 제방 위 호남선 횡단로 남쪽에서 유강리 사이의 철로 고정용 큰 못이 50여 개나 뿔뿔히 열차 통행이 곤란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를 선로 보수원들이 발견하여 부용역에 알리고 증거물을 제시하였다. 부용역 직원들이 이리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헌병대에 긴급 연락하고 헌병대는 이를 관할인 김제경찰서 고등계에 이첩하였다.

김제경찰서 고등계에서 수사한 끝에 치문학교 5학년 담임교사인 황염규(黃濂奎)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강의를 했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김제경찰서는 황염규를 체포하여 7개월 동안 가둔 뒤 1944년 11월 11일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하였다. 치문학교는 11월 2일 폐교 조치되었다.

(4) 화랑회 조직

1943년 이리농림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제 출신 이상운(李相雲)이 동기생인 장지환(張志煥)·김구(金九)·호중기(扈仲基)·김부준(金芙俊) 등과 1학년생인 서기용(徐基容)·박기춘(朴基春)·강동석(姜東錫) 등을 규합하여 화랑회를 조직했으며 1년 반 동안에 120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화랑회에 협조한 인사로는 사민단(事民團)의 김직수(金直洙)·임백상(林伯相)·김환용(金煥容)·장인규(張二圭) 등과 교외 인사인 김해룡(金海龍)·김재두(金

在斗)가 있었다.

화랑회는 1945년 5월 11일 23시를 기해서 김제군 금구면 오산리에 있는 고깔봉에서 광산의 폭약을 다량 탈취하여 김제경찰서 금구주재소를 습격하고 무기를 빼앗아 만경철교를 폭파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만경철교는 일본군의 중요 전략 물자 수송로였기 때문에 이곳을 차단하고 후방을 교란하여 일제의 패망을 앞당기기 위해 거사를 결심한 것이었다. 그러나 마침 그 부근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경찰관이 동원되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이후로는 징용 불응 권고, 유사시에 대비한 총기 취급 능력 함양, 일경과의 전투를 위한 체력 단련 등에 역점을 두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화약고 습격 미수 이후 1년 반이 경과한 1945년 4월 11일 갑작스런 검속과 더불어 회장 이상운의 가택이 수색되어 화랑회의 명단이 발각되었다.

그 후 이상운·장지환·장이규·김구·김직수·김환용 등이 구속되어 심한 고문과 조사로 빈사 상태에서 공판을 기다리다가 광복과 더불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5) 김제 만경공보의 동맹휴학

『동아일보』 1927월 11월 16일자에 보면 “김제군 만경공립보통학교 5학년 생도 40여 명은 지난 12일부터 일제히 등교치 아니하고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는데, 이제 그 이유를 듣건대 학생측으로부터 조선 역사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학년 담임교원인 일인 모는 ‘너희들은 일본 국민인 이상 일본 역사를 배우면 그만인데 조선 역사는 배워 무얼하느냐’ 하며 가르쳐 주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 혹시 전기 교원에게 물어보면 선생답게 이해하기 쉽도록 친절히 가르쳐 주기는커녕 덮어놓고 이제까지 모르느냐하며 성을 낼 뿐 외에 심하면 학생의 목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실로 그 선생의 성질이 패악하기가 짝이 없으므로 그 선생으로 부터는 절대로 교수를 받기가 무엇보다도 싫다는 것이 그동맹휴학한 원인이라더라.” 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는 당시 일제강점기에 배움터 있던 학생들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은, 3·1운동 이후 만경지역에 널리 퍼진 당시의 사회상을 잘 반영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6) 기타 김제지역 학생들의 항일운동

전라북도 김제 지역 출신 학생들 중 다수도 중앙의 항일 학생 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국장일을 맞아 전국 각처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경성에 운집하였다. 당시 김제군 만경면 만경리 출신으로 중앙보고 특과 2년생이던 곽대형은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연희전문학교 학생들 및 중등학교 학생들과 합세하여 국장일을 기하여 만세 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고, 6월 10일이 되자 수은동 단성사 앞 길가에서 국장 행렬을 봉송한 뒤 각기 소지하고 있던 격문을 살포하였다.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출신의 박중운(朴鍾雲)은 박일봉, 한중수, 조성효 등과 함께 당시 보성고보 교장, 교무주임, 교사 등의 인격 및 교수 방법에 대한 불만으로 1927년 7월 7일 진정서를 작성하여 교장에게 제출하고 회답을 요구하였으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장을 끌어내어 교문 밖으로 매어 내놓은 뒤 교문을 폐쇄 하는 등 친일교사의 배척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서울역 광장에서

- 불의에 항거했던 강우규 의사의 뜻을 기억하다



박 가 현
경기대 경영학과 4학년
제7기 독립정신 답사단



조 성 현
한국기술교육대 건축공학과 3학년
제7기 독립정신 답사단

1919년 9월 2일 남대문역(현재의 서울역)에서, 총독으로 부임하는 사이토 마코토의 마차에 폭탄을 던진 강우규 의사의 의거를 통해 당시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 투쟁방식은 변화를 맞게 된다. 즉, 독립운동 방식에 실천성이 강화되었다는 측면에서 강우규 의사의 서울역 의거는 의열투쟁이라는 새로운 민족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민족운동의 의열투쟁’이라는 새로운 민족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그 영웅-강우규 의사-이 92년 만인 지난 2011년 8월 8일에 동상으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백발이 성성하셨던 연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에 항거했던 강우규 의사의 뜻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상이 세워져 있는 서울역 광장에 다녀왔다.

동상으로 부활한 강우규 의사 동상은 서울역 광장에 우뚝 서서 그 힘찬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 동상은 마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실천적인 애국정신을 말하며 선진 통일 조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말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듯 역동적인 모습



을 보여주었다.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당시의 의거가 있었던 이 곳 서울역 광장에 서서 잠시 눈을 감으며 옛날 역사를 상기시켜 보았다.

1919년 9월 2일 오후 5시, 서울 남대문역(지금의 서울역)에는 조선 수탈정책의 최고 책임자로서, 즉 제3대 총독으로 부임하는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우리나라 땅을 밟고 있던 시각이었다. 사이토 마코토가 열차에서 내려 마차에 올라타자마자 어디선가 폭탄이 날아왔다. 폭탄은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목숨을 겨냥해서 날아왔지만, 불행히도 사이토 마코토의 목숨을 거두는 것에는 실패하게 된다.

폭탄을 던진 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된 일제 군경의 검속을 피해 다녔지만, 결국 일제의 앞잡이 김태석(金泰錫)에게 잡혀 서울역 의거의 주인공은 일제 군경에 넘겨지게 된다.

검거된 폭탄 투척자는 놀랍게도 애초 일제 군경들의 추측과는 달리 65세의 노인이었다. 그 노인이 바로 강우규 의사였던 것이다.

눈을 살며시 떠보았다.

두루마기 차림을 한 노인의 형상을 하고 오른쪽 손에 폭탄을 쥐고 있는 청동 동상이 내 앞에 우뚝 서 있었다. 굳게 다문 입술과, 강인한 눈빛이 그 당시의 용기와 의지를 담은 듯 보였다. 손에 쥐고 있는 폭탄을 그 때 당시 침략 원흉들의 가슴팍을 향해서 던질 것처럼, 강우규 의사의 동상은 정말이지 사실적이고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실제로 의거 당시 강우규 의사는 흰 두루마기 차림에 머리카락, 수염 모두가 흰색 이었다고 한다. 그런 노인의 모습을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폭탄을 투척할 것 같은 노인의 모습을 한 동상을 보며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그 때의 65세라면 지금의 80세 노인과 비슷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청년처럼 분연히, 그리고 의기롭게 행동할 수가 있었을까, 독립을 위한 애국정신을 일깨우고 선진 통일 조국으로 나아가자는 의지를 보이실 수 있었던 것인가 하고 강우규 의사의 용기에 감격하여 몇 번이나 강우규 의사의 동상을 바라보며 강우규 의사라는 역사적 위인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 마음속에서 샘솟았다.

차츰 주위의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다. 봄이 가까워 오는 만큼 따뜻한 햇살이 사방에 걸려 있었다. 한껏 가벼워진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그 사이를 바빠 누비고 있었다. 다친 사람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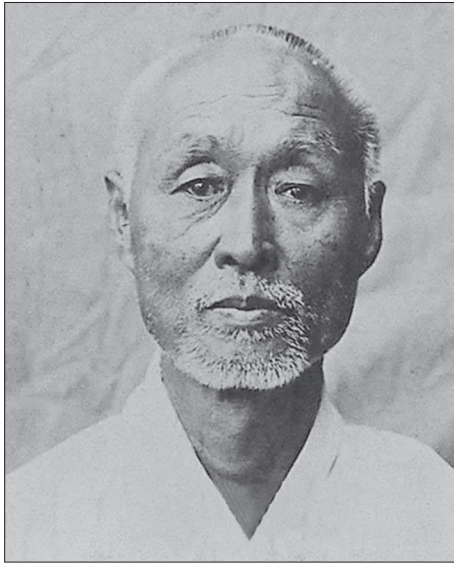
비명소리로 아비규환을 방불케 했을 그 때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되는 느낌을 받았다. 나도 햇살아래 유유히 동상아래 의사가 남기신 유시를 읽어 보았다. “단두대상 유재춘풍(斷頭臺上 猶在春風) / 유신무국 기무감상(有身無國 豈無感想) 단두대 위에 올라서니 오히려 봄바람만 부는구나, 몸은 있으나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회가 없으리요”

3·1운동 93주년이 되는 2012년, 나이에 구애 받지 않고 외세로부터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한평생을 바쳤던 강우규 의사의 행적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애국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일깨워 주는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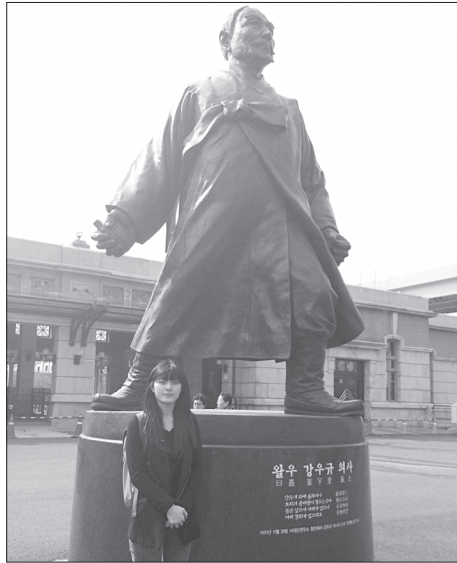
강우규 의사의 의거는 불행히도 사이토 마코토 처단에는 실패하였지만 그곳에 모인 일제 관동 37명을 사상케 하여 3·1운동 이후 희망을 잃은 국내외 민중들에게 무장투쟁이라는 새로운 민족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런 영웅적인 업적에도 불구하고 강우규 의사는 1920년 11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한 일이 없어서 매우 부끄럽다 하시며 청년 교육을 걱정하였다. “너 나 죽는다고 조금도 언짢게 생각하지 마라. 만일 내가 내가 사형 받는 것을 싫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면 나의 자식이 아니다. 내가 평생 세상에 대하여 한 일이 너무 없어 도로 부끄럽다. 내가 이때까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자나깨나 잊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교육이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내가 죽느니만 못할 것 같다. 즉 이번에 내가 죽으면 내가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조선청년의 가슴에 적으나마 무슨 이상한 느낌을 줄 것 같으면 그 느낌이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다. 이제 내가 이만큼 애쓰다가 죽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조선청년의 가슴에 인상만 박힌다면 그만이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 가슴에 한이 되는 것은 내가 죽은 후에 있을 조선청년들의 교육이다....”

강우규 의사는 아들에게 유언처럼 이런 말을 남겼다. 의거를 하시며,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시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사이토 한 개인의 죽음만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본인의 목숨과도 바뀔서 이루고 싶어 했던 그 것, 청년 교육! 강우규 의사의 뜻이 전해졌기 때문일까?

난 지금 이 순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 땅 위에서 대학생으로서 강우규 의사 동상 앞에서 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있게 해준 것이 다시금 고맙게 느껴졌다. 그러나 안중근,



▲ 여생을 다바쳐 조국광복의 길에 헌신했던 65세의 '청년' 강우규(1855~1920) 의사



▲ 서울역 광장에 자리잡고 있는 강우규 의사 동상 앞에서

윤봉길 의사에 비해 강우규 의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러웠다. 또한 그 분이 열망한 것처럼 내가 과연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얼마나 깨어있었는지에 대해 자문하니 심히 부끄러워졌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 넘을 만큼 청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 불의에 항거한 의사의 뜻을 기억하고 이어갈 것을 스스로 다짐해보며 난 그렇게 서울역 광장에 우뚝 서있는 강우규 의사 동상을 보고 또 보았다.

- 왈우(曰愚) 강우규 의사의 삶을 기리며 -

1919년 9월 2일, 남대문역(현재의 서울역). 한발의 폭음이 지천을 흔들었다. 조선총독부 제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환영행사 후 관저로 떠나는 마차에 오르려는 순간 일어난 일이다. 그로 인해 일제 관헌 및 호위 군경, 총독부 관리, 취재 기자 등 37명이 부상을 입었다. 수류탄을 던진 사람은 65세의 노인, 왈우 강우규 의사이다. 그는 조국광복을 염원하며 용감한 선택을 하였다.

왈우 강우규 의사의 본관은 진주. 자는 찬구(燦九)이다. 그는 1859년 6월 5일 평안남도 덕

천군에서 가난한 농가의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가난한 농가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으며, 1883년 함경남도 흥원군으로 이주하여 사설학교를 설립하고, 청년들에게 신학문을 권장하는 등 함경도 일대에서 민족교육을 통하여 독립운동의 역군을 양성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로 국권이 상실되자 독립운동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 후 북간도로 망명하여 연해주를 넘나들며 조국의 독립을 의논했다. 1915년 길림성 요하현의 신흥동으로 이주하여 농토를 개간해 신흥촌(新興村)이라는 한인교포 부락을 형성했다. 그곳에 광동학교(光東學校)를 설립하여 청소년의 민족의식 고취와 기독교 전도사업을 통한 민족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을 펼쳤다.

1919년 3·1운동 발발 이후 신흥동에서 적극적인 만세시위를 지휘하였고 대한노인동맹단의 지부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르는 대학살. 그는 큰 결심을 하였고, 이후 조선총독부 제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암살 계획을 세우고 매일 역전에 나가 그 지형을 조사하고 투탄위치를 정하는 등 치밀한 거사 계획을 세웠다. 1919년 8월 5일 서울에 도착. 같은 해 9월 2일 남대문역(현 서울역) 앞에서 사이토 마코토를 향해 수류탄을 투척했다. 강우규 의사의 의거는 비록 총독 암살에는 실패했지만, 세계만방에 대한 독립정신을 알리고 꺼져가는 독립운동의 불씨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강우규 의사는 9월 17일 일제 군경에 체포되어 1920년 11월 29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치열하고 외로웠던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순국하였다.

교육을 통해 이 나라 민족정신을 이어가고 독립을 성취하고자 했던 강우규 의사.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독립에 대한 열망과 일본에게 죽어가는 조선인들에 대한 안타까움, 절망이 그를 그렇게 커다란 결심을 하고 한을 담은 수류탄을 던지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일생을 배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 나라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은 강우규 의사. 청년들의 교육을 생각한 독립운동가. 그는 진정한 교육자였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내가 죽는다고 조금도 어찌지 말라. 내 평생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이 도리어 부끄럽다. 내가 자나 깨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교육이다. 내가 죽어서 청년들의 가슴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일이다.”

- 왈우 강우규 의사

캐나다, 그리고 그 속의 한국인과 우리의 문화



황 영 규
연세대 경영학과 4학년
제7기 독립정신 답사단

2011년 12월 22일, 나는 캐나다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다.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의 하나로, 토론토 York University 내의 Schulich school of business에 일 년 간 재학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출발하기 일주일 전까지도 나에게 캐나다는 정말 생소한 나라였다. 미국과 함께 북아메리카를 장악하고 있는, 따라서 ‘미국과 사회제도나 분위기가 비슷한 그런 나라가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만이 내 머리 속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캐나다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싣기 전 책과 인터넷을 통해 내가 처음으로 접한 ‘캐나다’라는 나라는 나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단 한 마디로 말하자면, 캐나다는 미국이 아니다. 나의 ‘미국과 비슷한 나라’라는 이미지는 캐나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 지 단 몇 분 만에 깨졌다.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에 비해 캐나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회주의 국가라고도 할 만큼 복지가 잘 되어있다. 다양한 민족이 모여 있음에도 백인이 일종의 텃세를 부리는 미국사회와는 달리, 인구의 대부분이 이민자들이고 인종을 가리지 않고 서로



▲ 캐나다에서-1 (필자 제공사진)

를 존중해주는 문화가 발달해있는 나라가 바로 캐나다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 이민자들 중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있다. 한인들이 많이 산다는 대표적인 두 도시가 밴쿠버와 토론토이고, 내가 속한 Schulich의 경우는 토론토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다. 토론토에는 한인타운이 두 곳이 있는데, 크

리스트 스테이션과 핀치 스테이션이다. 두 곳 모두 거리를 걷다보면 많은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고, 한국어로 적힌 간판과 이정표들, 한국 가게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마치 한국의 어떤 구역을 옮겨놓은 것 같은 한인타운의 모습이 아주 색달랐다. 그리고 동시에 지나가는 사람들 한명 한명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났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곳으로 와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Schulich에도 한인 유학생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었고, 나 역시 그들과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중학생, 고등학생 때 혼자만 유학을 온 친구들도 있었고, 가족과 함께 다 같이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다. 또는 정말 어릴 때 이민을 와서 한국말에 서툰 친구들도 있었다. 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인타운을 걸으면서 생각했던 그들의 삶에 더하여 한 가지가 정말 궁금해졌다.

‘지금 그들은 한국을, 자신의 고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의 역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독립정신 답사단의 일원으로서 작년과 재작년 답사에 참가했던 나였기에 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관심이 갔다. 먼저, 그들의 한국에 대한 생각은 아주 우호적이었다. 여기에서 태어난 이민 2세인 한국계 캐나다인 친구도 한



국말을 할 줄 모르지만 자신은 나중에 꼭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역시 같은 피가 흐르는 한민족이기 때문일까? 서로 말이 안 통할 때도 있었지만, 나 역시 그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이민이나 유학을 온 대부분의 친구들은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이 없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즐겨 보는데, 역사와 관련된 드라마들을 볼 때마다 자신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때때로 아주 신기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님, 일제의 침탈, 독립, 김구 선생님 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을 보니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다. 동시에, ‘그렇다면 이들이 바라보는 한국은 자신의 자랑스러운 조국이라기 보다, 부모님이 나고 자라신 흥미가 있고 가보고 싶은 외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한국의 단면은, 요즘 성행하고 있는 K-POP, 가수들,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드라마들과 그 드라마들에 등장하는 유명한 배우들, 캐나다와는 다른 한밤의 네온사인들(캐나다는 우리나라와 달리 술집들이 모여 있어서 늦게까지 왁자지껄한 그런 지역이 없다) 정도였다. 그 모든 것들 역시 대한민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것도 우리의 문화이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모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최근 프랑스에서 규모가 큰 K-POP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 그래서 프랑스 출신 교환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프랑스내 십대들에게 K-POP이 정말 인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시아권으로만 수출했을 것으로 생각했던 한국의 드라마까지, 프랑스에서 보고 왔다는 교환학생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을 동경하고 있는 유학생, 이민 학생들이 가지는 한국에 대한 의미가 그저 위에서 언급한 만큼으로 충분한 것일까? 예전 고등학생시절, 근현대사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던 나 역시 독립정신 답사단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독립운동사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다. 나에게 독립운동이란 누구나 다 아는 김구 선생님, 광복절, 그리고 할아버지의 회고 말씀, 딱 그 정도였다. 하지만 답사단 활동을 통해 이름 모를 많은 독립운동가분들과 그 분들의 활동에 대해 알아가고, 중국에 있는 그 분들의 발자취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와 자존감이 내 가슴속에 자라났다고 생각한다.



▲ 캐나다에서-2 (필자 제공사진)

국권이 피탈되었던 시기, 끝까지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지 않고, 일제의 눈을 피해서 어린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르쳐온 조상님들의 노력이 바로 그런 이유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역사가 계승되지 않고 전통이 사라진다면 나라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다.

잠깐 옆으로 빠져서, 외국에 가면 누구나 다 하게 되는 우리나라 자랑을 조금 해보고 싶다. 캐나다라는, 우리나라에서 멀고 먼 나라로 와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저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다. Schulich의 Business 수업에서는 종종 한국의 기업들이 케이스로 등장한다. 그 성공 스토리들을 들을 때마다 새삼 자랑스러워진다. 세계 그 어느 누가 한국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후, 50년 만에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을까?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으로 토론토 시내를 돌아보던 날, ROGERS CENTER라는 큰 건물의 브라운관에 당당히 우리나라 기업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것을 봤을 때, 함께 갔던 멕시코에서 온 교환학생 친구가 한 말이 기억이 난다. “너는 너희 나라를 자랑스러워해야 해(You should be proud of your country)”라는.

아시아권에서 온 친구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어릴 때 이민을 온 캐나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많은 한국 노래들과 한국 드라마, 한국 배우들에 대해 말한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한국어를 배우고 있기까지 하다. 이미 다음 여름학기에 한국에서 인턴십을 할 계획인 친구도 있고, 나에게 교환학생 기간 동안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진지하게 부탁하는 친구까지 있다.

기분이 참 묘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가 유명하다’, ‘드라마를 본 외국 사람들이 단체로 관광을 왔다’ ‘K-POP 공연이 외국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등등 한류의



인기에 대한 많은 뉴스들을 접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우리나라 뉴스니까 조금씩 다 과장해서 그런 거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부 과장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니, 기쁘면서도 조금은 어안이 병병했다. 나도 잘 모르는 배우, 가수에 대해 물어보고, 나도 모르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뭔가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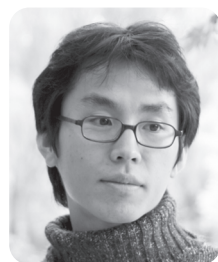
이민 1세분들에게 조국은 어떤 의미일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은 학교 앞이 일종의 하숙집이다. 이 집은 한국 분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 분은 현재 여러 채의 하숙집을 관리하시면서,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다. 캐나다는 부유한 나라이고 사회보장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기에, 여기서 사는 것은 크게 힘들지는 않다고 한다. 하지만 타국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은 힘들기에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난 이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한다. 이민 2세들이 아닌, 어른으로서 이민을 오신 분이기에 아마 그런 상실감은 더욱 크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머나먼 타국에서 고향, 조국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가지는 의미는 내가 생각해 왔던 것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지금의 한국은 활발히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가고 있다. 많은 타국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를 접하고 빠져들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그 우수함을 세계 곳곳에서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만난 한인 유학생, 이민 학생들은 과연 그런 높아지는 위상에 걸맞은 역사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본격적으로 역사를 배우기 전, 외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은 ‘국민으로서의 조국’이 아니라 그저 ‘나와 관련이 있는, 캐나다에는 없는 흥미로운 것들을 가진 나라’ 정도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사를 모르면, 그 나라를 알 수 없다고 한다. 지금 캐나다, 아니 전 세계에 나가있는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한국의 피상적인 모습보다는, 우리가 거쳐 온 우리가 헤쳐 온 ‘역사’라는 두 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이 글을 마친다. 



영화 <팅거 테일러 솔저 스파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스파이 영화



이 두 희
자유기고가

얼마 전 개봉했던 고전적 분위기의 스파이 영화 <팅거 테일러 솔저 스파이>(2011)의 줄거리는 영국 비밀 정보부에서 은퇴한 요원 스마일리가 조직 내 러시아와 내통하는 스파이를 찾아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영화의 제목 텡거, 테일러, 솔저 역시 모두 조직 내 주요한 직위의 용의자들을 주인공이 일컫는 별칭들로서, 영화 속에서 스마일리는 자신의 조직과 관련한 과거의 작전들과 다른 비밀 요원 모두를 의혹의 선상에 두고 진실의 논리 게임을 펼치려고 한다.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존 르 카레는 대표작 <추운나라에서 온 스파이>를 비롯한 스파이 소설의 고전들을 남긴 유명 작가이다. 르 카레의 소설들을 좋아했던 이들이라면 스마일리나 피터 길럼 같은 소설속의 인물들을 영화로 다시 본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울 것이다. 하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이미 냉전이라는 단어가 지난 세기의 추억처럼 되어버린 지금에 와서, 스파이 소설이나 탐정 소설과 같은 장르 소설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 이름조차도 낯설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대중 영화들이 여전히 이러한 장르 소설들로부터 그 소재들을 이어받은 입장에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물론 007시리즈의 배경과 사건들은 달라졌고, 정교한 논리적 추리보다는 첨단 기술과 액션의 스펙터클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20세기 스파이 소설의 고전을 지금 영화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팅거 테일러 솔저 스파이〉에 앞서 〈렛미인〉(2008)이라는 독특한 북유럽 분위기의 뱀파이어 소녀 영화를 만들어낸 토마스 알프레드슨 감독은 역시 영화를 원작 그대로 그려내려 했던 것 같지는 않다. 사실 〈렛미인〉 역시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각색했던 영화이기도 했으므로 애초 감독이 소설과 영화의 관계를 고민하지 않았을 리 없다. 이번 영화 〈팅거 테일러 솔저 스파이〉를 볼 때, 두드러지는 차별점은 사건의 논리적 전개에 대한 완벽한 전달보다는 다소 이야기를 압축하더라도 주요한 사건들의 분위기만을 선택하여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영화 속에서 그려진 개개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묘사는 정확하더라도 관객들은 그것들만을 엮어서는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그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이 영화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에는 단지 영화의 서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작 소설의 줄거리나 냉전시대 강국들의 정보전에 대한 어떤 참조와 외연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작 그러한 외부의 또 다른 서사들이 과연 실재하는지를 우리는 확신할 수도 없다. 물론 관객들은 나름대로 원작 소설에서 생략된 부분이나 르 카레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를 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고 영화의 이야기를 연대기적으로 보다 일관되게 설명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영화를 풍부하게 한다기보다는 영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 혹은 이해가 만들어지는 공간을 더 풍부하게 할 뿐이다.

영화 〈팅거 테일러 솔저 스파이〉에서 감독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관객의 공간을 건드리고 자극하여 영화를 영화 바깥으로부터 들여다보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관객은 물론 영화의 주인공 스마일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들뿐이다. 단지 그것들 안에서부터 어떻게 그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조직의 밖으로 나간 스마일리의 의심은 다시 조직 내부를 향하고 있다. 이중스파이를 찾는 일은 무엇보다 적과 나를 구별하는 일이지만 애초에 적과 나는 과연 다르기는 한 것인가. 그리고 적과 내가 구별되는 세계는 실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을 품은 채 다시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으로 돌아온다면 이러한 회의는 각색한 영화와 소설과의 관계나 소설이 만들어낸 세계와 현실의 관계에 대한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 영화 안의 모호한 균열에서 시작한 의혹이 결국 영화의 바깥을 영화 속으로 개입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물론 당장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연 다른 영화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만 할 수 있을까?

영화에는, 그리고 문학을 포함한 다른 재현 예술 모두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영화가 현실을 그래도 투영하거나 현실로부터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영화 역시 현실의 한 부분으로서 스스로의 한계를 숨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영상과 소리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며 완결성을 가진 또 하나의 현실을 만들어내려 하고 후자는 영화 자체의 작위성을 드러내며 만들어진 현실의 구성과 의도를 검토하고 반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거칠게 비유한다면 ‘세계를 향한 창’으로서의 영화에 대해서 ‘세계’와 ‘창틀’에 대한 관심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 입장이 반드시 서로 반목하고 공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는 환영성(illusionism)으로 그리고 후자는 자기반영적(self reflexivity)인 경향으로 나뉘어져 꾸준히 전개되어왔다.

그리고 영화는 언어를 매개로 하는 문학 등과는 다르게 영상과 사운드라는 매체를 이용하는 만큼 관념적이기보다는 이미지적인 방식의 자의식을 가지고자 노력했다. <팅거 테일러 솔저 스파이>에서도 역시 이러한 의미들은 사건들이 아닌 사건과 사건들 사이의 틈과 모호한 이미지들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영화의 자기반영적 방법은 주인공의 근본적인 의심부터 시작하여, 드러난 사건들의 과부족, 그리고 이미 지나가버린 스파이 소설들과 냉전시대에 대한 알 수 없는 향수를 부추기는 것 등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여기서 스마일리의 스파이에 대한 의혹은 몇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곧 스파이 소설, 그리고 영화의 이야기성에 대한 반성예의 비유가 된다. 과연 그 시절 우리가 소설과 영화를 통해 보았던 것들은 현실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이야기들이었을까. 그리고 냉전시대 그리고 지난 20세기에 대해서 남겨진 우리의 기억은 어디서부터 비롯하는 것들인가. 한때 당연하다고 생



각했던 현실이 그저 이야기들뿐이지는 아니었는지. 결국 영화 <팅거 테일러 솔저 스파이>가 되돌아 보는 것은 스파이 영화, 그리고 스파이들이 있었던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일 것이다.

물론 영화를 허구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 간주하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가 만들어내는 환영의 세계 앞에서 자신의 자의식을 한 번도 내려놓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이다. 일단은 관객의 이해가 만들어지는 공간에도 역시 극단적이지도 않지만 역시 중립적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긴장과 균형을 필요로 한다고만 해두자. 세계를 향한 창은 세계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관심을 동시에 비추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참고로 원작 소설가 존 르 카레는 1931년생으로 냉전시대에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이미 TV와 영화 등으로 각색이 이루어진 여러 작품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팅거 테일러 솔저 스파이>를, 이전에도 자신의 작품인 <테일러 오브 파나마>(2001)의 각색에도 참여했다고 한다. 이 영화 역시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가짜 첩보전을 소재로 하는 스파이 장르에 대한 짓궂은 위트가 많은 작품이다. 한편으로는 냉전시대에 전성기를 누렸던 장르의 작가가 아직도 활동한다는 게 놀랍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똑같은 소재를 고집하며 포스트 냉전시대에 장르적 후일담까지 참여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영화 <팅거 테일러 솔저 스파이>

74주기를 맞아 도산 안창호 선생님 영전에 아뢰나이다



이 만 열
숙명여대 명예교수/前 국사편찬위원장

선생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많은 선진들 앞에 100년 편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100년 편지’ 100회를 맞으면서 도산 선생님 영전에 이 편지를 드리나이다. 올 3월 10일은 선생님이 가신 지 74년째가 되는 날이지요. 선생님께서는 1878년 11월 9일에 태어나 1938년에 돌아가셨으니 만 60을 채우지 못하셨지만, 선생님은 한말 일제강점기의 국민계몽에서 출발하여 교육, 사상, 실업, 결사 및 독립 운동에 힘쓰신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인간화’ 운동에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선생님의 생애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지요. 평안남도 시골에서 서당 공부를 이수한 선생님은 청일전쟁이 끝날 무렵 상경하여 구세학당에서 신학문을 닦으셨고 예수교에 입교하여 평생을 예수교인다운 인격으로 활동하셨습니다.



▲ 청년 시절의 도산 안창호(1878~1938) 선생

한말 독립협회 평양지부에서 활동하시면서 애국 계몽연설로 민족을 자각시켰고, 교육구국의 길을 찾아 도미 유학의 길에 오르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동포들을 선도하면서 공립협회를 설립하고 공립신보를 창간하여 뒷날 대한인국민회와 신한민보의 토대를 닦으셨습니다.

나라가 기울어지는 것을 해외에서 볼 수만 없어 급히 귀국하여 신민회를 조직, 국권수호에 힘쓰다가 망명길에 올랐고, 중국과 연해주에서 해외독립운동을 지도하셨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흥사단을 조직하고 대한인국민회의 중앙총회장에 취임하여 인재 양성과 독립운동을 지도하는 한편 북미실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무실역행(務實力行) 민력증강(民力增強)에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인재를

양성하고 정치적 결사를 공고히 하여 힘을 키우고 실업으로 부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자주독립의 기초임을 뼈저리게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선생님은 대한인국민회를 대표하여 독립전쟁 준비를 호소하고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단 파견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상해로 오셔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틀을 마련하고 통합 임시정부를 성사시켜 정부의 말석(末席)을 지키셨습니다.

선생님의 민족적 경륜과 아량이 없었다면 좀처럼 성사시키기 어려운 과업이었습니다. 임정이 무기력해지자 국민대표회의 부의장, 인성학교 교장으로 통의군, 시사책진회, 한국노병회 건립에도 참여하는 한편 이상촌 건설을 위해 중국관내와 만주를 시찰하고 독립군 단체들과 회합했습니다.

1926년에는 미국에서 출발, 다시 하와이 호주를 거쳐 홍콩, 남경, 상해, 북경 및 만주 일대를 순회하며 한국유일독립당 결성을 호소하면서 이상촌 후보지도 탐색했습니다. 이 때 선생님은 한국독립당을 창당하고 대공주의(大公主義)를 제창하는 한편 경제합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 100년 편지 |

공평사를 설립했고 대일전선통일동맹을 결성, 독립운동전선 통일운동을 추진하시면서 중국측과도 항일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의거 날,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 옥고를 치르셨고, 1937년 6월에는 다시 동우회사건으로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겪으시던 중 병보석 상태에서 1938년 3월 10일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이 때를 맞아 ‘100년 편지’를 띄우는 것은 선생님의 기일을 맞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인격과 공동체 사랑의 그 정신이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감명과 공감대를 형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를 맞으면서 국제적 표준(글로벌 스탠더드)을 활성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보이신 정직과 공정성은 날로 흠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임시정부를 성사시키기 위해 대통령제를 성사시키시면서 당신께서는 한사코 노동국총판 자리에 머물렀던 것은 선생님의 선공후사의 정신을 극적으로 보이시는 것이면서 오늘날 엽관(獵官)운동에 눈이 뒤집힌 우리 사회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지도층이 보이고 있는 반민주적, 편파적 작태는 선생님께서 보이신 민주적 아량을 자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아집과 불통은 선생님의 소통을 사모하게 합니다.

선생님께서 바람잘 날 없는 독립운동 전선에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시면서 일방적인 통고 형식이 아닌, 상대방이 납득하도록 정성을 다해 설명하고 설득하셨습니다. 선생님의 포용력은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서도 총단결을 호소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형성된 대공주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오늘 선생님께 편지를 드리게 된 까닭입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엄격히 관리하시면서 주변을 교양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본은 정직과 성실에 두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은 나의 불구대천지원수(不俱戴天之怨

鬻)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공익정신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 마음의 거짓없음을 성실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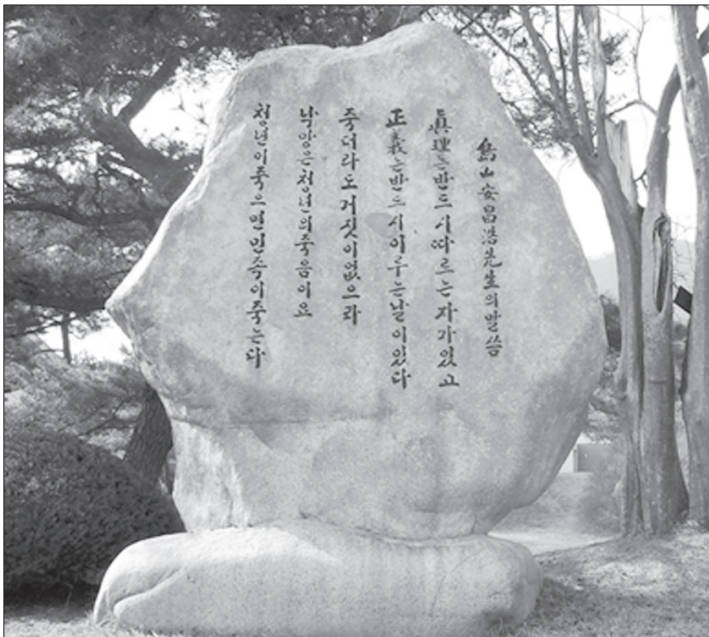
바로 그 점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하나의 무형자본으로 간주되는 신용(신뢰)이라는 꽃을 피우게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선생님은 굴 하나 따는 데도 애국심이 깃든다고 하면서 정직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다면서 스캔들에 연루되지 않은 경우가 쉽지 않았지만, 선생님에게서 그런 것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몸에 밴 정직 성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해외동포들은 선생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임시정부를 조직, 운영하는 데에 소요된 막대한 경비가 선생님을 통해 조달된 것은 선생님의 그런 정직 성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독립운동이 이념과 투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간파했습니다. 독립의 기반이 경제력에 기초해야 함을 지실(知悉)하고 실업운동에 늘 앞장섰습니다. 신민회 시절, 평양의 마산동 자기회사를 설립하셨고, 미주의 북미실업주식회사, 상해의 대생(大生)철공장, 소비조합운

동인 공평합작사(公平合作社) 등도 선생님이 동지들과 뜻을 모아 일으켰습니다. 또 독립운동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토개발과 이상촌을 구상했으며, 자본 축적을 위해 ‘동맹저축’을 장려하여 그것으로 사업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점차 다민족사회로 변화해가는 상황에서



▲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어록비(독립기념관 순환로 소재) 중에서

일찍이 다민족사회에서 지혜를 발휘한 선생님을 기억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족혈통과 문화전통, 신앙사상과 생활습관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가 좀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인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일찍이 다문화사회를 경험하면서 민족간의 협동과 평화를 이룩하는 데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때는 우리 민족이 미국이라는 다문화사회에서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뜻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동남아시아의 많은 민족을 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문화사회 건설에 앞장 서셨던 선생님의 그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민족간의 차별성을 극복하고 세계의 평화를 열어가려는 선생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정직과 성실, 공정과 인애, 민주와 민족이 폄훼되는 시대상황에서 한 세기나 앞서서 뒷세대의 귀감으로 살아가신 선생님을 흠모합니다. 도산 공원 선생님의 묘소 옆에 서 있는 비문의 끝절을 소개하는 것으로 제 편지를 끝내려 합니다.

“정직 성실은 선생의 인품이요, 극기 절제는 선생의 실천이다. 술선수범 지행합일은 스승됨을 보임이요, 애기애타(愛己愛他) 파당초월은 가르침으로 살아있다. 민족운동에 이념과 방략을 제시하고, 조직과 인물을 설계하며 민족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주장했으니 그 요체는 대공주의요, 해방 전후의 건국강령과 민주공화국은 그 열매다. 독립투쟁에 인간주의를 불어넣고 개인과 민족, 나라와 세계의 접목을 꾀하며 활동영역을 중국관내, 만주, 러시아, 북미, 하와이, 멕시코, 호주, 필리핀까지 포괄했으니, 선생은 나라경계를 넘어 온 누리에 지금도 우뚝 서 있다.”



100년 편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2019년)이 될 때까지 본회에서 매주 발송하는 편지이자, 편지로 쓰는 칼럼입니다. 지난 2009년 4월 13일 첫 번째 100년 편지 발송 후,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러 백 번째 100년 편지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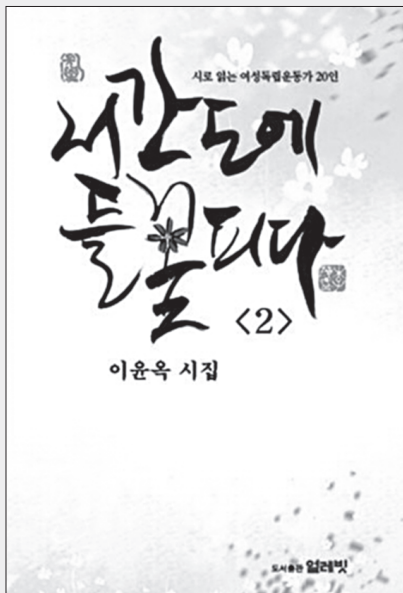
매주 발송되는 100년 편지를 기다려 주시는 모든 분과 정성스레 100년 편지 원고를 어느덧 보내주시는 고마운 분들과 함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100년 편지를 함께 하겠습니다. - 편집부 -



서간도에 들꽃피다 2

이윤옥 지음 / 도서출판 열레빗 펴냄

☞ 이윤옥 시인과 김영조 소장(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의 대담을 통해 본
『서간도에 들꽃피다 2』



『서간도에 들꽃피다 2』는 20명의 여성독립운동을 골라 이들에게 드리는 헌시와 더불어 이들의 삶을 재조명한 시집이다. 작년에 나온 『서간도에 들꽃피다 1』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래 이번 『서간도에 들꽃피다 2』에서 다루고 있는 20명을 포함해 그간 모두 40명의 여성독립운동을 햇빛으로 이끌어낸 이 시집은 구성부터 독특하다.

현재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남성 독립운동가는 12,000명인데 견주어 여성 독립운동가는 200여 명에 불과하다고 이윤옥 시인은 말한다. 그나마도 이들 여성독립운동가의 삶은 역사로부터 조명 받지 못한 채 서간도의 이름

없는 들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안타까워 이 시집을 쓰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윤옥 시인과의 대담을 통해 이 시집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새겨보기로 한다.

김영조 소장 : 이번 <2권>에서 가장 가슴을 울린 애국지사는 누구였나?

이윤옥 시인 : “쟁쟁한 독립운동가 뒤에 숨어서 가슴 아픈 뒷바라지를 했던 이은숙, 허은, 이해동 세 분이다. 이들에 대한 책이나 자료를 찾아 읽으면서 나는 여러 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 글쓰기를 중단하곤 했다. 수없이 들고나는 독립군들의 끼니 걱정부터 땀감이며 옷가지를 마련하는 일로 날을 지새우다가 피로에 지쳐 하마터면 죽 솥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절망의 끈을 놓지 않은 분들이야말로 애국자 중에서도 애국자요, 독립투사 중에서도 독립투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 기생의 신분임에도 만세운동을 외면하지 않고 가장 앞에 서서 독립을 외쳤던 안성기생 변매화, 파도치는 바다 속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뛰어들어야 하는 해녀 신분에도 식민지 백성의 착취를 가만두고 보지 않은 제주의 부춘화 여사의 삶도 감명 깊게 느껴졌다.

김영조 소장 :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자료가 빈약하다고 들었다. 어느 정도 인가?

이윤옥 시인 : “그렇다. 정부로부터 훈·포장 받은 애국지사의 자료가 단 세줄 뿐인 사람도 있다. 자료를 찾으려고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고 자료가 있다면 전국 어디라도 달려갔다. 부족한 자료는 후손을 만나 보충하기도 했다. 특히 시를 써야 하는 관계로 그들의 고향과 무덤이 있는 곳에도 여러 차례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세상에 이름 석 자를 알리지 못한 많은 여성독립운동가가 나를 기다리기 때문에 분발하고 있다.”

김영조 소장 : 지난번 〈1권〉과 이번에 나온 〈2권〉의 인물선정의 특징이 있다면?

이윤옥 시인 : 〈1권〉에서는 최초의 여자 비행사 권기옥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20명 모두를 국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사람위주로 선정했다. 그러나 2권에서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김상옥열사 어머니인 김점순 애국지사를 포함한 15명은 훈포장을 받은 분들이지만 나머지 5명은 서훈자가 아니다. 이들 5명은 6형제 독립운동가 중 한분인 우당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 만주호랑이 일송 김동삼의 며느리 이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국무령(대통령) 석주 이상룡의 손자며느리인 허은 여사 같은 분들로 비록 훈포장은 못 받았지만 누구보다도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이다. 결코 이들의 독립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외면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2권>에서 다룬 인물 가운데는 “남에는 유관순, 북에는 동풍신”이란 제목으로 소개한 동풍신 애국지사처럼 남북한의 이념으로 갈라진 정치체제 하에서 북쪽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넣었다. 뿐만 아니라 안성기생 변매화 같이 3.1만세 운동에 적극 가담했던 기록이 있는 분들도 챙겼다.

김영조 소장 : <2권>을 쓰는데 어려움과 앞으로의 계획은?

이윤옥 시인 : “가장 어려운 것은 자료부족이다. 남성위주의 기록문화가 여성들을 소외시켰다. 그래서 그런지 연구서들도 남성위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출판 비용이다. 지금 이 책은 자비출판으로 근근이 찍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가지로 힘겹지만 쉬지 않고 분발하여 <3권>에 또 다시 20명의 여성독립운동가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 내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라는 바이다.”

대답을 하는 동안 이 시인의 눈은 빛났고 그 모습이 매우 당차 보였다. 그것은 이 시인이 겨레에 대한 사랑이 절절하고, 글쓰기에 대한 내공이 짙 차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올해로 93돌의 삼일절을 맞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를 모르는 어린 자녀에게 나라사랑 정신이 배어 있는 시집 『서간도에 들꽃피다』를 선물한다면 이 시인의 ‘노고’는 결실을 보는 것이리라 생각이 든다.



『서간도에 들꽃피다 2』 저자 - 시인 이윤옥

E-mail : 59yoon@hanmail.net

Tel. 02-733-5027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5년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간행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까지 총 51책(45권, 별책 6권)을 완간하였다. 이 자료집 간행 이전에도 국가나 민간기관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집들이 정리된 바가 없지는 않았으나, 대개의 경우 체계적인 계획 없이 산발적으로 간행되었고, 적지 않은 오류가 있기도 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국내외에 산재해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원 사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방향으로 기획하고, 이를 위해 전문 학자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편찬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원본 자료를 확보·선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치중하였고, 자료집은 원본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탈초본 또는 번역본을 함께 수록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간행을 통해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선열들의 업적이 역사 속에서 더 확연히 드러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사 및 관련 연구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자료집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권 헌법·공보

제2~6권 임시의정원 1~5(홍진 기증자료)

제7권 한일관계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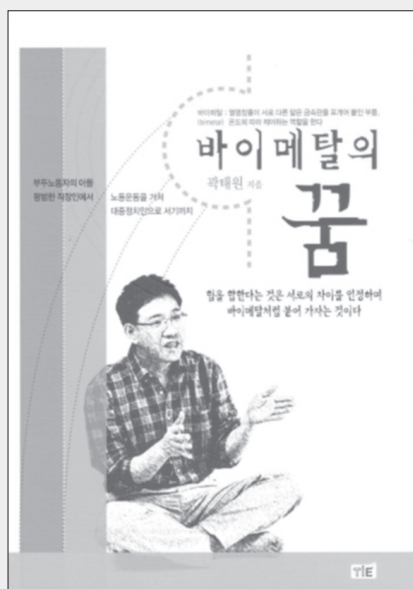
- 제8권 정부수반
- 제9권 군무부
- 제10~15권 한국광복군 I ~ VI
- 제16권 외무부
- 제17~18권 구미 위원부 I · II
- 제19~20권 주미 외교위원부 I · II
- 제21권 파리 위원부
- 제22권 대중국 외교활동
- 제23~24권 대유럽 외교 I · II
- 제25권 중국의 인식
- 제26권 미국의 인식
- 제27권 내무부 · 교통부 · 재무부 · 문화부
- 제28~30권 한인애국단 I ~ III
- 제31~32권 관련단체 I ~ II
- 제33~34권 한국독립당 I ~ II
- 제35~36권 한국국민당 I ~ II
- 제37권 조선민족혁명당 및 기타 정당
- 제38권 국내 보도기사
- 제39~40권 중국 보도기사 I ~ II
- 제41권 일본 · 미국 보도기사
- 제42~43권 임시정부 지도자와 주요 인물간 서신자료 I ~ II
- 제44권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인물의 사진 자료
- 제45권 임시정부의 활동 연표와 총목차(직원록 포함)
- 별책 1 독립신문
- 별책 2 조선민족운동연감
- 별책 3 배달공론 · 독립공론
- 별책 4 韓民(중문판)
- 별책 5~6 국민대표회의 I ~ II



바이메탈의 꿈

곽태원-한국노동경제연구원장 지음 / 출판사 타이 펄냄

✻ 서평기고 - 정해구(성공회대 사회과학부교수)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담담하게, 그러나 매우 솔직하게 적은『바이메탈의 꿈』, 이 책의 저자인 곽태원은 나의 절친한 대학 친구이다. 물론 대학 입학 이전에는 전혀 그를 몰랐다. 대학에 들어와 같은 과의 동료로서 그를 만났기 때문이다. 첫 인상은 좀 낯설었던 것 같다. 충청도 출신인 내가 잘 알아듣기도 힘들었던 경상도 말은 일단 좀 시끄러웠고, 그것은 나에게 신기하면서도 이방인 같은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내 대학 생활에서 녹아들었다. 특히 행정학과의 특성상 고시공부를 한다고 학교에서 같이 거주했던 생활은 서울에서 좀 외롭

기도 한 지방 출신들에게 친밀감과 동료 의식을 제공해주었다.

행정학과 학생들이 통상 그러하듯이, 우리는 고시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는 품은 잡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은 아니다. 유신독재가 기승을 부렸던 1970년대 후반의 상황에서 이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채 열심히 고시공부에만 치중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신독재에 대한 분노와 저항감을 지닌 채,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어찌해볼 수도 없는 무력감 속에서 우울한 대학 생활을 보냈다. 그리고 그 우울함을 자기 위안의 낭만으로 달래려했던 것인지, 자주 술을 마셨고 연애를 한다고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녔던 일들이 기억에 남는다.



문제가 보다 명확해진 것은 대학을 졸업한 후였다.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현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우리는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착오의 우여곡절 끝에 그는 회사에 취직했고 나는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했다. 돌이켜 보니,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서로 다른 인생 행로를 걷게 만들었던 갈림길이었다. 이후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그는 사무금융노조 분야의 꽤나 유명한 노동운동가가 되었고, 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자주 만나지 못했다.

인생 행로를 바꾼 ‘소박한 양심의 결정’

대학 재학 당시, 나는 그가 노동운동가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되어야 한다는, 당시 학생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의식은 있었지만, 그래도 졸업 후 우선 급했던 것은 호구지책을 위한 취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취직을 했을 때 그가 전업적인 노동운동가가 되리라고는 거의 생각해보지 못했다. 아마 그 역시 대학 재학 당시나 취직 직후에 그러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취직 후 그는 노동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환경에 직면했고, 따라서 그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이메탈의 꿈』은 그가 노동운동에 나서게 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들어온 회사에서 ‘나’라는 개인을 회사를 팔아넘길 때 평가받는 하나의 부속으로 취급한다는 깨달음은 충격이었다. 내가 높이 평가했던 부장님도 결국 이후의 회사 인수과정에서 회사를 나갔다. 15년 이상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인데 말이다. 자연스럽게 15년 후 혹은 그 이전이라도 내가 저런 모습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23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금의 희생이 있더라도 후배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불합리한 직장을 물려주지 말자’는 말을 종종 했었다. 그래, 그렇다면 하자. 결국은 위원장을 하기로 했다. 사람이 사는 일이 상식적이어야 하고 거기에서 내가 할 바가 있다면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양심적 결정이, 짧은 시간에 스스로의 인생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도박으로 변했다. 1985년 1월 30일이었다.”(28쪽)



그렇다면 그가 노동운동가가 된 것은 우연이었나? 일면에서는 그렇다. 그가 생각지도 않게 노동운동가가 된 것은 그가 그 회사에 들어갔다는 우연적 사실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가 노동운동가가 된 것은 필연이기도 했던 것 같다. 사람이 사는 일이 상식적이어야 하고 자신이 할 바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소박한 양심적 결정’이 결국 그가 인생을 걸고 노동운동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우리가 전망하기 어려운 미지의 길이기도 하다. 상황이 자신이 생각지도 않던 일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미지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길이다. 인생이란 그렇다. 아무튼, 나는 ‘소박한 양심’에 따른 그의 선택이, 그리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그의 인생이 매우 값진 것이라 생각한다.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것

주변을 살펴보면 운동가들의 결혼 생활이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운동을 해야 할 때 수반되는 생활상의 악조건은 흔히 가정불화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꾸고자 했지만, 현실은 자신의 가정 하나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도 가정을 잘 이끄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 존경스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하다. 아무튼, 이 점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또 하나의 이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아니, 어떤 점에서 그러한 환경이 그로 하여금 노동운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자극과 환경을 제공해주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의 부인 역시 노동운동가이다. 또한 그 부인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독립운동가 집안의 후손이다. 독립운동에서 노동운동으로 이어지는 이 같은 집안 환경은 큰 사위인 그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바이메탈의 꿈』에서 그 영향에 대해, 특히 그가 존경해 마지않았던 할머니(독립운동가 정정화 鄭靖和: 1900. 8. 3 · 1991. 11. 2)의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사회적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스스로 즐겨 생각하던 아내의 할머니께서는, 임시정부를 지난 6·25와 군사독재를 모두 겪으시고, 우리 첫 아이를 키워주신 후에, 내가 감옥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동안 돌아가셨다.”(9쪽)

사실 우리 역사, 특히 근현대사의 역사는 잘 된 것보다 잘 되지 않은 것이 더욱 많다. 그리



고 그 와중에서 수많은 변신과 기회주의자들이 등장했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거의 독립운동에서부터 지금의 노동운동에 이르기까지 낮은 곳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그 집안은 우리 시대의 귀감이 아닐 수 없다. 대대로 이어지는 운동 가문이 주는 영향, 즉 그가 ‘사회적 유전자’라 칭했던 그 영향은 그의 노동운동에 커다란 힘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그는『바이메탈의 꿈』에서 그의 부모, 특히 신산스러운 삶을 살아오신 - 그러나 가족에게 그다지 친절하지 않았던 -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와 화해하는 것에 30년이 넘는 삶과 10년의 노동운동이 필요했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 시간과 경험을 통해 “아버지와 내가 같은 사회적 입장을 가진 동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9쪽). 어떤 점에서 우리 모두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시대의 산물이다. 그의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태도 역시 한 시대가 만들어냈던 결과이고, 그의 아들인 그가 노동운동을 통해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그러한 시대의 아픔을 같이 하는 것이리라. 그런 점에서 아버지와 자신이 같은 사회적 입장을 가진 동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늦게 깨달을 뿐이다.

새로운 출발에 서서

이제 50대 중반에 선 그는 현재 인생의 한 기간을 마감하고 또 다른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있다. 그 동안의 노동운동에 바탕하여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또 한 번의 인생을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대학 이후 오랜만에 그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우선 2~3년 전 오랜만에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말했다. 늦은 나이이지만,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못 다한 공부를 다시 하겠다고, 대학 졸업 후 사회 진출을 앞두고 우리가 했던 그 말을 30년 후에 다시 하게 될 줄이야. 이에 나는 그의 경험과 지식을 고려하여 노동경제학 공부를 추천했고, 그는 그 전공으로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그리고 작년 나는 정치에 나서겠다는 그를 다시 만났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나의 지식이 현실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그에게 별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의 정치 입문에 찬성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이 허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그의 정치 입문의 의사에 찬성했다. 그가 노동운동에 임했던 그 진정성과 그가 가진 경험을 존중했기 때문이



다. 물론 정치 입문의 첫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 올해 4월 총선의 국민 경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 정치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앞으로 그가 정치를 계속 하고자 할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나는 그가 정치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지금껏 그가 보여주었던 그 진정성을 갖고 정치에 다시 나선다면 미력이나마 그를 도울 생각이다. 친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에 임했던 그 ‘소박한 양심’과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그이기 때문이다. 책에 대한 서평이 아니라 친구인 저자에 대한 평이 된 감이 없지 않다. 또한 친구의 책에 대해 서평한다는 것도 여러모로 부자연스럽다. 그렇지만 감히 서평에 나서는 것은 바로 그의 인생이 보여주었던 진정성을 믿기 때문이다.

3·1절 기념 진관사 문화재 사진 전시회

서울 은평구에서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6일까지 항일 역사의를 높이기 위한 '제2회 진관사 문화재 사진 전시회'를 마련하였다. 진관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사진 전시회에서 전시된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운동 신문류 등 6종 21점의 유물은 지난 2009년 5월 진관사 칠성각 해체 보수 과정에서 내부 불단과 벽체 사이에서 발견된 것들이다. 이 유물들은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진관사에서 활동하던 스님들이 독립운동에 가담해 확보한 자료로서 항일 독립운동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인정돼 2010년 2월 등록문화재 제458호로 지정됐다.



3·1여성동지회 창립 제45주년 기념 <제18회 한국여성독립운동사 학술연구발표회>



지난 3월 19일(월), 사단법인 3·1여성동지회 주최로 3·1여성동지회 창립 제45주년 기념 <한국여성독립운동사 학술연구발표회>가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3·1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하여 1967년 창립된 3·1여성동지회(회장 박용옥)는 창립이후 3·1정신 계승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학

술회의,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시국강연회 등을 꾸준히 실시해 왔으며 올해의 한국여성독립운동사 학술연구발표회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여성독립운동가>라는 주제로 '정정화의 생애와 독립운동(발표자: 단국대 사학과 한시준 교수)', '김순애의 생애와 독립운동(발표자: 강영심 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학술연구발표가 있었다.

이 날 행사에는 본회 김자동 회장,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하였다.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한국독립유공자협회(회장 임우철) 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3월 21일(수) 효창공원 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민주사회 원로들과 역사정신을 가진 정치사회 인사들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으며, 한국독립유공자협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축사, 문화예술공연의 식순으로 진행되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2주기 추모식



안중근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와 안중근평화연구원(원장 안충석)가 공동주최한 <안중근 의사 순국 102주기 추모식>이 지난 3월 24일(토) 효창공원 안중근 의사 묘역에서 열렸다. 1910년 3월 26일 뤼순감옥에서 순국한 것을 추모하기 위한 이번 <안중근 의사 순국 102주기 추모식>에는 본회의 김자동 회장과 함세웅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백산 지청천 장군 제55주기 추모식

지난 4월 10일(화), 한국광복군동지회(회장 김영관) 주관으로 백산 지청천 장군 제55주기 추모식이 거행되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표상으로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을 역임한 백산 지청천 장군의 애국충정과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한 금번 행사에는 유가족, 한국광복군동지회 회원, 광복회 회원, 추모객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제93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제93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4월 13일 서울 효창공원 내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올해 기념식은 ‘희망으로 만든 나라, 다 함께 펼칠 미래’라는 주제로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나라사랑과 화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자는 의미로 거행되었다.

기념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본회 김자동 회장, 박유철 광복회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등 각계 인사와 시민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상설 선생 순국 95주기 추모식



애국지사 이상설 선생의 항일구국 독립운동을 기리는 95주기 추모식이 지난 4월 22일(일), 충북 진천군 송열사에서 열렸다. (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회장 이재정)가 주최한 추모식은 1부 제례에 이어 2부 추모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독립정신 산악회 정기산행

지난 3월 24일(토)과 4월 28일(토), 각각 독립정신 산악회(회장 이호헌) 46차, 47차 정기산행이 실시되었다. 46차 정기산행(인왕산)에서는 본회 및 독립정신 산악회의 무운장구와 한 해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지냈다.

독립정신 산악회의 정기산행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안내는 매월 본회 홈페이지(www.kopogo.com)에 공지된다.



면암 최익현 선생 항일거의 제106주년 추모제

면암 최익현 선생 추모제가 지난 4월 16일, 충남 청양군 모덕사에서 엄숙히 거행됐다. 각급 기관 단체장과 유족, 주민 등 4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추모제는 대통령 의 헌화, 행장낭독, 추모사, 면암찬가, 헌화,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제는 조선 말기의 대학자이며 의병장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살신성인한 면암 최익현 선생의 일제침략에 대항하는 독립정신과 충정을 다하는 높은 뜻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13일 청양군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다.

모덕사는 면암 최익현 선생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사당으로 고종황제의 밀지 가운데 ‘나라 일이 어지러움에 경의 높은 덕을 사모하노라’라는 문구 중 모(慕)자와 덕(德)자를 취해 ‘모덕사’라 했으며 1984년 충남 문화재자료 제152호로 지정됐다.

■ 바로잡습니다

독립정신 62호(3·4월)의 「안동사람들의 독립운동」 편

필자의 요청으로 62호(3·4월) 30페이지 본문 중의 ‘이상룡이 살던 집에 비가 새서 아들 이상룡은’을 ‘이상룡이 살던 집에 비가 새서 아들 이준형은’으로 바로잡습니다.

– 김구선생이 쓴 ‘백범일지’에는 ‘이상룡(李尙龍)의 자손이 살부회(殺父會)를 조직했다’는 대목이 있는데, 이 ‘이상룡’이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낸 ‘이상룡(李相龍)’ 선생을 말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소문을 듣고 쓴 잘못이다. 도진순 교수의 백범일기 주해본(314쪽) 등 수많은 백범일기 주해본에서 이 대목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다. ‘백범일지’가 매우 중요한 사료이고, 독립운동의 ‘국민교본’이 되고 있는 현실일수록 잘못 또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 대목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서중석 교수의 저서 『신흥무관학교』와 김희곤 교수의 저서 『안동사람들의 항일운동』 등에 자세히 나와 있다.

「안동사람들의 독립운동」 편 – 김도현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2년 3월, 4월 회비납부자 명단◆

회원명	3월	4월	회원명	3월	4월	회원명	3월	4월
(사)유정조동호 선생기념사업회	10,000	10,000	박익란	30,000	30,000	이창중	20,000	
강만길	20,000		박인석	10,000	10,000	이학호	20,000	20,000
강재욱	20,000	20,000	박정근	30,000	30,000	이학호	10,000	10,000
강찬모	20,000	2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항중	30,000	30,000
곽태원	50,000	50,000	반병률	10,000	10,000	이해준	20,000	20,000
권상윤	10,000	10,000	백낙청	10,000	10,000	이화순	30,000	
권순갑	20,000	20,000	백영미	10,000	10,000	이해숙	10,000	10,000
권영관	10,000	10,000	변병식	100,000	100,000	이호현	20,000	20,000
길사원	10,000	10,000	서영훈	30,000	30,000	임재경	10,000	10,000
김경애	10,000	10,000	서홍관	30,000	30,000	임진택	5,000	5,000
김광림	30,000	30,000	성인제약(주)	100,000	100,000	장팔순	20,000	10,000
김광재	5,000	5,000	신명식	10,000	10,000	전창일	20,000	20,000
김동현	10,000	10,000	신영한	10,000	10,000	정동익	30,000	30,000
김봉현	30,000	30,000	신준수	20,000	2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삼웅	10,000	10,000	심재권	30,000	30,000	정범구	30,000	30,000
김선군	10,000	10,000	안효진	10,000	10,000	정재경	10,000	10,000
김성곤	20,000	10,000	양인선	10,000	10,000	정철승	30,000	30,000
김성록	10,000	10,000	양진호	10,000	10,000	정환기	10,000	10,000
김소중	10,000	10,000	엄기남	10,000	10,000	조기식	10,000	10,000
김숙정	50,000	50,000	염승훈	10,000	10,000	조명숙	10,000	10,000
김연실	10,000	10,000	오성근	10,000	10,000	조세현	10,000	10,000
김영림		30,000	오승숙	10,000	10,000	조용준	30,000	30,000
김영인	30,000		오영은	30,000	3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용수	5,000	5,000	오은주	20,000	2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원규	10,000	10,000	오정수	20,000	20,000	조준표	10,000	10,000
김 위	20,000	20,000	우상호	30,000	30,000	조화환	10,000	10,000
김위현	50,000	50,000	원영애	30,000	3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윤수	30,000	30,000	유기수	20,000	10,000	주철기	30,000	3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유은숙	10,000	10,000	차영조	30,000	30,000
김재홍	10,000	10,000	유원목	20,000		천정배	10,000	10,000
김정경	10,000	10,000	유종하	10,000	10,000	최낙현	20,000	20,000
김정인	10,000	10,000	윤경자	30,000	30,000	최문성	10,000	10,000
김종규	10,000	10,000	윤영소	10,000	10,000	최문순	10,000	10,000
김종성	20,000	20,000	윤종순	5,000	5,000	최영진	10,000	10,000
김정록	50,000	50,000	윤한옥	10,000	10,000	최정식	10,000	10,000
김종배	20,000	20,000	이건웅	10,000	10,000	함세웅	30,000	30,000
김준상	100,000		이계환	10,000	10,000	홍순권	10,000	10,000
김중숙	10,000	10,000	이규중	30,000	30,000	황승일	10,000	10,000
김진경	10,000	10,000	이규호	30,000	30,000	홍승현	10,000	10,000
김진모	20,000	20,000	이두엽	20,000	20,000	황용만	5,000	5,000
김진영	10,000	10,000	이두희	30,000	30,000			
김진현	50,000	50,000	이병규	10,000				
김판수	5,000	5,000	이상준	200,000	200,000			
김학근	10,000	10,000	이성배	10,000	10,000			
김현모	10,000	10,000	이영국	10,000	10,000			
김호진	10,000	10,000	이영숙	10,000	10,000			
김희선	10,000	10,000	이영후	30,000	30,000			
남만우	30,000	30,000	이용규	10,000	10,000			
노시선	30,000	30,000	이우재	10,000	10,000			
류동연	5,000	5,000	이원혁	100,000	100,000			
민항선	10,000	10,000	이윤옥	20,000	20,000			
박녹삼	10,000	10,000	이응국	5,000	5,000			
박동기		70,000	이인석	10,000	10,000			
박두곤	10,000	10,000	이일선	30,000	30,000			
박아영	10,000	10,000	이재선	5,000	5,000			
박양수	10,000	10,000	이정재	50,000	50,000			
박원표	50,000	50,000	이종락	30,000	3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중찬	100,000	100,000			
			이창복	20,000	20,000			

2012년 3월, 4월 기념관회비

회원명	3월	4월
최기창	10,000	10,000

2012년 3월, 4월 특별회비

회원명	3월	4월
(주)오토오티오	5,000,000	5,000,000
(주)아팩철강	2,000,000	3,000,000
송만섭	100,000	
홍소연	50,000	
조세현		50,000
주섭일		50,000
김인덕		50,000

◆ 입 회 원 서 ◆

이 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 택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직 업		소 속	
비 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 행 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 25일 ☐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자유지정금액 ☐ (원)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님이 침묵하는 시대의 승려상

항일



한 용 운 (1876~1944)



1919년 삼일운동 때 불교계를 대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3년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불교혁신운동을 펴는 한편 시작 활동에도 힘을 기울여 1926년 민족의 독립에 대한 신념과 희망을 사랑의 노래로써 형상화한

〈님의 침묵〉을 발표하였다.

1927년 신간회가 결성되자 중앙집행위원과 경성지회장을 겸임하며 열성적으로 활동하였다. 신간회 해소 이후 1931년 조선불교청년회를 조선불교청년동맹으로 개칭,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을 강화하였고 월간지 〈불교〉를 인수, 이후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불교의 대중화와 독립사상 고취에 힘썼다. 1938년 즈가 지도해오던 불교계통의 비밀결사단체가 발각되어(만당교黨 사건) 많은 조직원들이 검사되고 자신도 고초를 겪었다.

1940년대 일제의 전시체제가 노골화하자 창씨개명과 징병제 실시를 반대하며 불교혁신운동과 문학작품 집필에 힘쓰다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여 1944년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강 대 련 (?~1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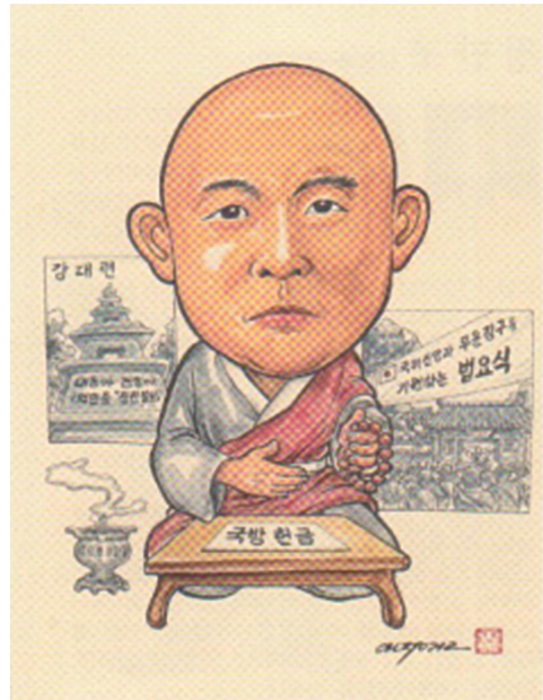
창씨명 : 이하라 가오루(渭原馨)

1899년 불교전문교원대 교과를 졸업하고 1911년 부터 사망 시까지 수원 용주사 주지를 지냈다. 1915년 30본산 연합사무소가 설치되자 초대 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여러 차례

위원장과 상무위원을 중임하면서 일제의 종교시책에 적극 협조했다.

1919년 11월 그는 “일본승려와 조선승려들이 조선 왕족의 여자나 양반 딸과도 혼인할 수 있게 한다면 조선 동화(同化)와 불교 감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해 민족계열 학생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조선불교계의 큰 악마’라는 깃발 아래 북을 등에 지고 절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전시체제기에 들어서 우가키 총독의 심전개발운동에 협력했고, 일본군의 국위선양과 무운장구를 기원하는 법요식을 봉행했으며 수차례 거액의 국방헌금을 헌납했다.



친일

화북지역 항일 무장투쟁지로를 따라서

서안 → 낙양 → 장치 → 좌권 → 섭현 → 한단 → 석가장 → 북경

제8기
「독립정신」
답사단 모집

2012. 7. 17(화) ~ 2012. 7. 23(월)

6박 7일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 서류접수 2012년 5월 15일(화) ~ 2012년 6월 5일(화)
- 선발자 발표 2012년 6월 11일(월)

신청방법

- 본회 홈페이지(www.kopogo.com)에서 접수

선발인원

- 국내외 대학(원)생 50명 내외

선발기준

- 역사와 민족의식이 투철한 남녀 대학생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참가비

- 70만원(비자비 등 일체 경비 포함)

선발자 워크숍

- 2012. 7. 5(목) ~ 2012. 7. 6(금) <1박 2일>
- * 미참석자는 포기로 간주, 예비후보 선발

기타

- 세부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www.kopogo.com 참조
- 참가자 전원에게 답사 수료증 수여

주최 -  (사)대한민국입시정부기념사업회

후원 -  국가보훈처  내일신문
The Naeil News

협찬 -  삼성전자

